
碩士學位論文

姜敬愛 小說에 나타난 女性 正體性 研究

— 「어머니와 딸」·「소금」·「인간문제」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李 榮 心

1998年 8月

姜敬愛 小說에 나타난 女性 正體性 研究

— 「어머니와 딸」·「소금」·「인간문제」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李 榮 心



李榮心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姜敬愛小說에 나타난 女性 正體性 研究

- 「어머니와 딸」·「소금」·「인간문제」를 중심으로 -

李 榮 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1930년대 강경애의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소금」·「인간문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여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첫째, 계급갈등 요소를 중심으로 작가의 사상성이나 리얼리즘에 치우쳤던 접근 방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작품 해석에 있어 남성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여성인물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협성을 벗어 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룰 '여성 정체성'은 페미니스트 관점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합하면서 여성경험이 어떻게 여성의식으로 변형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다. 세 편의 장편소설은 여주인공들의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체성 획득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그는 간도에서 거주하다가 만 36세로 요절했다는 이유와 간도문단이 차지하는 한국문학사적 위치가 아직도 확립되지 못해 그의 생애에 대한 실증적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변 및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가 소개됨에 따라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경애는 전 생애 동안 매우 궁핍하게 살았고 이는 여성해방 사상의 내적 원인이 된다. 둘째, 혼인 이후 식민지 시대 간도체험의 공간적 특수성이 문학작품에 '모성애'로 형상화 되었다. 셋째, 그의 작품에 드러난 여주인공은 가부장제 질서에서

※) 이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관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희생적이고 순응적인 전통적 여성관이 드러난다. 넷째, 강경애의 남편은 그의 작품 창작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생애 특징은 일찍부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 모순을 느끼게 되었고 궁핍한 간도체험은 조국이 처한 식민지라는 현실인 민족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쥬디스 키건 가디너(J. K. Gardiner)와 낸시 코도로우(N. Chodrow)는 여성 정체성 이론을 대표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쥬디스 키건 가디너는 여성 정체성이 지니는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측면과 여성작가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낸시 코도로우는 여성 정체성의 특수성은 남성에 비해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세 작품에 드러난 여성인물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정체성을 획득하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딸』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남성의 배신으로 인한 여성들이 어떻게 황폐화되고 타락되 가는가를 어머니 세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극복은 딸 세대인 옥이가 식민지 사회 현실을 깨닫고 사회적 각성을 통해 정체성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금』은 식민지 시대의 공간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간도를 배경으로 가난과 굶주림의 이중고 속에서 전통적 모성체험과 현실대응 의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설 구조적 측면에서 다분히 장편적 소재와 구성이면서도 중편 정도의 적은 분량 속에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주인공의 현실인식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인간문제』는 여주인공 '선비'의 성적·계급적 모순을 겪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기를 찾는 여성 정체성 획득 양상이 나타난다. 여주인공을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한 현실인 식민지 사회 구조의 모순을 읽게 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은 총체적인 인간문제의 근원적 해결만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 『소금』에 나타난 일정 정도의 정체성 획득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시켜 정체성 획득 양상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目 次

<國文抄錄>

I. 序 論

1. 研究史 檢討 및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6

II. 傳記的 考察 8

III. 女性正體性 獲得 樣相

1. 理論的 背景 16
2. 家父長制 이데올로기 克服 20
3. 傳統的 母性體驗과 現實認識 34
4. 下層民 女性の 矛盾自覺 45

IV. 結 論 58

<參考文獻> 61

Abstract 63

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연구목적

강경애(1907~1944)는 1931년 「파금」에서부터 미완성 작인 「검둥이」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2편의 장편과 18편의 중·단편을 발표하였다. 1931~34년까지 전기에는 「파금」, 「부자」, 「축구전」, 「소금」등을 통해 일제와 만주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그리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1935년~38년까지 후기에는 「모자」, 「지하촌」, 「산남」, 「어둠」, 「마약」 등을 통해 사회적 현실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활의 극심한 빈곤현상과 사회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 「소금」, 「인간문제」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변혁적 성향을 지닌 여성인물을 제시하여 강한 저항성과 현실변혁의 의지를 보인 작가이다.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당대의 평가를 비롯하여 문학사 기술, 본격적인 학위논문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먼저 작가에 대한 논의는 동시대인들이 신문 잡지를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비평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무영은 그의 초기작들을 대상으로 “건설미가 있고 추상적이 아닌 사실주의 필법을 보여주고 있다.”¹⁾고 보았다. 장혁주는 리얼리즘의 대표작가로 이기영을 꼽은 다음 그와 어깨를 겨룰 여류작가 중 한명을 강경애로 들고 있다²⁾. 반면 양주동은 “미세한 부분은 재치가 보여도 전체의 테마를 선명하게 잡을 줄 모르며,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능력 부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³⁾ 그리고 홍구는 “기교는 어느 점까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씨는 아직 ‘사상적 불명료’를 말하고 있다.”⁴⁾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들 동시대인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성실하고 사회성이 강한 작가’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제의 형상화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능력’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거친 후 백철은 1947년 “치밀하고 성실한 일로를 걸어간 노력의 작

- 1) 이무영 (1934. 2), “여류작가개평”, 「신가정」, p. 67.
- 2) 장혁주 (1935. 7), “강경애여사께”, 「신동아」, p. 139.
- 3) 양주동 (1934. 2), “여류문인 편감촌평”, 「신가정」, p. 36.
- 4) 홍 구 (1933. 3),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p. 75.

가로서 여류작가로서는 보기 드문 끈기와 인내성을 가진 작가”⁵⁾라고 총괄적으로 강경애를 평가하였다.

이처럼 많은 문사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문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작가의 짧은 생애와 작품활동의 근거지가 간도라는 특수한 공간이 그의 문학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가 타계한 뒤 50~60년대의 문학사에는 강경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언급을 하더라도 작품 자체에 대한 것 보다는 연보적인 성격만 간혹 있을 뿐이다.⁶⁾

70년대 들어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강경애를 문학사에 편입시켜 논의의 물꼬를 튼 사람은 이재선⁷⁾이었다. 그 이후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강경애에 대한 평가가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논의가 강경애의 작품 성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류작가’라는 편견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내리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시각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궁핍’의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거나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었기에 사회문제의 해결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거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물과 여성현실

5) 백 철 (1983),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p. 409

“동반자작가의 테두리를 이렇게 넓혀가면 30년대 초기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의 여류작가 강경애도 그 주변에 가까이 서서 자연주의적인 리아리즘을 작품으로 한 사람이다. 강경애는 1931년말에 발표한 「어머니와 딸」이 첫 작품인데 그는 이 처녀장편에서 시대적인 주제를 파악한 점과 그것을 다룬 문학적 수완에 있어서 일 수준을 갖고 등장한 작품이다. ……이 모든 작품을통하여 흐른 일관된 작품은 진실한 리아리즘이다. 그것은 너무 자연주의적인 것과 가깝기 때문에 가끔 너무 평면적인 묘사에 떨어진 것이 없지 않으나 그대신 어데까지나 세밀하고 성실한 일로써 거러간 노력의 작가로서 여류작가로서는 보기 드문 끈기와 인내성을 가진 작가이다”.

6) 김우중 (1973),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임현영 (1974), 「한국근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백 철· 이병기 (1975), 「국문학 전사」, 신구문화사.

7) 이재선 (1979),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p. 437.

“강경애는 정감성이나 여성원리에 근거하는 작가이기보다는 외향적이고 비판적인 이념을 중시하는 리얼리스트다”.

8) 이규희 (1974), “강경애론-빛과 어둠의 절규-”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숙원 (1976), “강경애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경 (1984), “강경애 연구-작가의 현실인식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지로 축소 해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 강경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그 이유는 80년대에 사회주의 원전의 소개와 해금작가에 대한 연구 등의 외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터일 것이다. 먼저 김윤식은 강경애 문학 세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인간문제」가 한국소설사에서 새로운 경지를 연 작품⁹⁾으로 평가하였다. 조남현 역시 강경애 작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주제에 있어서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작가적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작가”¹⁰⁾로 평가 하였다. 반면에 정한숙은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감정을 극복하고 사회의 暗面을 헤쳐서 불운한 인간들의 생존의 어려움을 그리는 독특한 작품의 소유자”¹¹⁾로 평가한다.

80년대 후반 이후 새로 기술되는 문학사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동일은 강경애의 소설 「모자」, 「원고료 이백원」, 「어둠」, 「젊은 어머니」의 작품 줄거리를 언급하면서 당대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항일 의지와 투쟁을 직접 드러낸다¹²⁾고 보았다.

이처럼 50년대 이후 남한문학사에서는 강경애가 거의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언급¹³⁾에 머물고 있다가 80년대 이후 소장파 학자들과 석·박사 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문학사에서는 1959년 『조선문학통사』에서 「인간문제」를 이기영의 「고향」과 함께 1930년대 장편소설의 가장 탁월한 성과로 꼽고 있어 강경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작가는 다양한 인간 형상을 통하여 1930년대 조선 현실의 제반 특질을 계급적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¹⁴⁾

9) 김윤식 (1981), 「속 한국근대작가론」, 일지사, p. 245.

10) 조남현 (1987),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p. 150.

11) 정한숙 (1982), 「현대한국소설사」, 고대출판부, p. 187.

12) 조동일 (1990), 「한국문학통사 5」 (제2판), 지식산업사, pp. 436~438 참조.

13) 이처럼 그의 작품이 평단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된 것은 그가 주로 당시의 중앙문단과 인연이 먼 간도 지방에서 문학활동을 했다는 점과 당시 평단의 인맥적 편협성, 그리고 문학사가들의 편견에 따른 서술의 고착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송백현 (1985), “강경애의 「인간문제」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3집,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p.103.)

1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1988),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인동, pp. 152~153.

“작가는 당대 현실에 있어 인간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제통치하의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전복하는 혁명운동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의 승리를 위하여 피압박, 피지배의 근로대중은 어떠한 길을 걸어야만 하느냐에 대하여 예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문학개관』에서는 강경애의 생애와 아울러 「소금」을 「인간문제」와 같이 항일무장 투쟁의 일단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한다. 특히 「소금」은 부분적으로 형상이 미숙하고 자연주의적 요소가 있으나 총체적으로 항일투쟁에 대한 정당한 입장에서 직접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강경애를 자기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과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재능있는 여류작가의 한 사람으로 이 시기 소설문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의 소설의 예술적 특성은 주인공들의 성격발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폭넓은 구상과 인물들의 운명 발전을 계기짓는 사건들과 그 속에서 발전되는 인물들의 심리묘사와 간결하고 섬세한 언어구사 등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된다고 기술한다.¹⁵⁾

연변에서 나온 박충록의 『조선문학간사』에서 강경애는 카프 성원이 아니었으나 '동반작가'로서 무산대중을 위한 문학활동을 전개한 작가로 보았다. 그의 창작세계는 자신의 생활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최하층에서 신음하는 여성들의 형상에는 여류 작가다운 섬세한 세부묘사와 깊은 동정에 찬 서정성이 깃들여 있다고 극찬한다.¹⁶⁾ 『조선족문학통사』에서는 「인간문제」를 당시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조선족 문학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한다.¹⁷⁾ 이러한 평가는 북한문학사 서술 태도와 동일한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문학사와 연변문학사에서는 강경애를 3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인물과 상황의 전형화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강경애에 관한 연구는 계급 갈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작가의 사상성이나 작품의 형상성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리얼리즘 시각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의 문학작품에 드러나 있는 작가의 현실인식 태도에 주목하거나 세 편의 장편소설 중에서도 「인간문제」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다른 두 편의 장편소설은 논의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드러난다.

15) 박종원·류 만 (1988), 「조선문학개관Ⅱ」, 인동, pp. 74~78.

16) 박충록 (1987), 「조선문학간사」, 연변출판사, pp. 283~285 참조. (한국에서는 「한국민중문학사」, 열사람, 1988년 발간)

17) 조성일·권 철 외 (1997), 「중국조선족문학통사」, 이회문화사, p. 164.

그리고, 「인간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지하 농촌의 소작문제와 이농에 따른 도시 노동자들로 전환되면서 계급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인간문제」는 1930년대 우리 문단사에서 뛰어난 리얼리즘 소설로 주목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작품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남성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인물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페미니즘 이론의 부상으로 강경애 소설을 통해 식민지 시대 여성인물과 여성문제의 연구¹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정자는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30년대 여류소설에서 유일하게 일제의 경제침략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문제삼고 여성해방론의 주요 논점을 소설화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이는 여성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성과와 더불어 그동안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작품을 연구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페미니즘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어머니와 딸」·「인간문제」·「소금」을 페미니즘 성장소설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억압하에서 진정한 여성체험을 통한 여성적 자기를 발견하는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여성체험, 특히 자기발견의 체험을 여성의 시각으로 읽어 여성문학의 새로운 측면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송지현은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선비라는 주인공의 「눈물」이라는 자아에서 「저항」의 자아로 변화됨을 지적하고 있어 여성주인공이 어떻게 자아를 정립해 나가는지를 제시해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강경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계급 갈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작가의 사상성이나 리얼리즘에 치우쳤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작품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남성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여성 인물들은 논

18) 김용희 (1989), 「인간문제에 나타난 여성의식」, 『이화어문논집』.

서정자 (1988), 「일제강점하의 여류소설연구」, 숙대 박사논문.

----- (1991),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김양선 (1991), 「1930년대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 강경애의 「인간문제」, 이기영의 「고향」, 한설야의 「황혼」을 중심으로-」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2권 2호.

송지현 (1991), 「1930년대 소설에 있어서의 여성자아 정립양상」,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더불어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작품해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리얼리즘적 읽기에서 간과되었던 여성적 국면을 새롭게 밝혀내어 강경애 작품에 드러난 여주인공의 정체성 확립 과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논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강경애의 소설중 작가의 비판적 정신을 잘 나타낸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혜성, 1931. 5~1932. 4. 제일선 1932. 5~1932. 10), 「소금」¹⁹⁾(신가정, 1934. 5~10), 「인간문제」(동아일보, 1934. 8~12. 22) 등 세편이다. 이 장편소설들은 특히 여성 주인공들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 작품들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해석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식민지 여성들의 겪어야 했던 성적·계급적·민족적 모순들을 어떻게 깨닫고 여성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되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작가의 전기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글쓰기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조건에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30년대 우리나라 소설사에 나타난 장편화 현상은 식민지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작가정신과 과거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관심의 증폭에서 비롯²⁰⁾되었다. 한편, 강영주는 1930년대의 문단은 심한 침체의 상태속에서 그 돌파구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작 방법론이 출현하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대부분이고, 혼돈의 상태가 정비되자 문단의 관심은 장편소설로 기울어지게 되었다²¹⁾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학적 위기에 대한 문학 자체의 탈출구로 장편화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19) 「소금」은 간도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완성된 작품의 분량은 장편에 미치지 못하지만, 1934년<신가정>에 연재 될 당시에는 장편소설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 인물의 삶을 폭 넓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구성 또한 장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0) 정덕준 (1992),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p. 368.

21) 강영주 (1977), 「1930년대 평단의 소설론」, 「창작과 비평」, 가을호, p. 267.

강경애는 세편의 장편소설을 남겼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의 연구가 「인간문제」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작품 해석은 남성주인공 '첫째'의 현실인식과 의식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성인물의 소극적인 면과 사회문제 해결의 제시자를 남성 주인공 '첫째'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작품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장편소설 주인공인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간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두 편의 장편소설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들 논의는 페미니즘 문학비평 중 여성 정체성 이론을 원용하여 여주인공들의 정체성 획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장편소설 주인공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과 나약하고 의존적인 삶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인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은 여성 해방운동의 기저가 되는 여권의식이 문학비평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새로운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종속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상징의 힘과 문화의 이데올로기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같은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하는 의식과 행동의 총체가 곧 여성주의, 여권주의, 또는 여성해방으로 일컬어지는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페미니즘 시각에서 살펴본 결과 그의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사회 모순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획득하는 것은 자율성·독립성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룬 장편소설 중 「어머니와 딸」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아래서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당하던 여인상에서 자아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여성 주인공 '옥이'가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딸 세대를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여성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발전적 인물로 제시한다.

또한, 「소금」은 작가가 간도 체험에서 겪은 생활상의 고통과 식민지라는 설움속에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과 일제와 봉건지주의 탄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주인공인 봉염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강한 모성에

22) 최 영 (1994),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 그 이론화의 쟁점과 흐름", 「현대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인문과학연구소편, 성균관대 출판부, p. 311 참조.

발휘와 사회 모순을 인식하는 인물로 설정된다.

한편, 「인간문제」는 농민이자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여성 주인공인 선비가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노동자로서 체험을 겪으면서 사회·정치적 자아로 각성하여 정체성을 얻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이 세 작품 모두가 여주인공들이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식의 각성과 정체성 획득의 길로 나아가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작품의 세 여주인공이 어떻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페미니즘 시각인 여성 정체성 개념을 도입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기적 고찰

여성작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여성중심 비평은 그동안 소외되고 상대화되어 온 여성을 남성의 대상물이 아닌 주체이며 중심에 놓으려는 입장을 강조하는 비평 방법이다. 여성작가 연구를 통해 여성문학의 전통을 발견하고 정립하며, 문학사에서 소외된 여성 작가를 발굴해 그 위치를 복원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와 여성문학의 전통과 특성을 통해 여성성을 구명하려는 여성중심 연구는 여성의 글쓰기가 배제되고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에 여성작가의 작품을 발굴하고 이해하는 문학사적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²³⁾

이에 그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획득 양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1930년대라는 시대성과 맞물려 작가로서의 전기적 사실²⁴⁾을 살피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윤식은 “이름과 풍문만 요란히 남아 있고 실제의 작품이 거의 없거나 보잘 것 없는

23) 여성중심비평은 Elaine Showalter가 대표적 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Ellen Mores의 「문학적 여성들」(Literary Women, 1977)과 Patricia Mayer Spacks의 「여성의 상상력」(The Female Imagination, 1976), 그리고 쇼왈터의 「그녀 자신들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 1977)과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비평」(Feminist Criticism In The Wilderness, 1981), Sandra Gilbert와 Susan Gubar의 공저 「다락방의 미친 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 1979)등이 방향전환을 보여주는 저술들이다. (송지현, 앞의 책, pp. 130~131 참조.)

24) 강경애는 작품창작이나 혼인생활을 대부분 간도에서 하였으며, 해방전에 요절했던 이유로 최근 북한 문학사나 연변에서 씌어진 문학사, 수필, 회고담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 무렵의 다른 여류작가들과는 달리, 강경애의 경우는 작품만 덩그러니 우뚝 솟아 있을 뿐이고 그것은 그의 문단적 불행이기도 하다”²⁵⁾라고 하였다. 이렇듯 짧은 생애와 간도에서 대부분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그의 작품의 진가는 인정되고 있지만 삶의 행적과 인적 사항을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변 및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의 일부가 소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규희(이화여대, 석사논문, 1974)와 박충록의 『조선문학간사』 중 ‘강경애의 생애’에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 함으로써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규희설과 박충록설을 대비²⁶⁾해보면 출생과 사망 연도부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강경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주변에 관한 상황은 아직도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최근 연변에서 간행된 문학사 및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²⁷⁾와 지금까지 논의된 자료를 종합해 보건대 박충록설이 근거가

25) 김윤식 (1981), 「(속)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p. 242.

26) 채 훈 (1990), “강경애론-본격적 천착을 위한 예비적 논의 몇가지”,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이선영 편, 한길사, p. 284.

	이규희설	박충록설
1.출생년	1907	1906. 4. 20
2.송의여학교 재학기간 및 그의 행적	1921(14세 때) 형부의 도움으로 평양송의여학교로 입학. 1922년 맹휴관계로 퇴학. 1923~1924년 양주동을 따라 상경, 동덕여학교 1년간 수학.	1924(18세 때) 형부의 도움으로 평양송의여학교 입학, 세계관 발전의 큰 영향 받다. 1926년(3학년 때) 맹휴관계로 퇴학. 귀향후 ‘홍풍야학교’ 세워 교편잡는 한편 습작.
3.1929~1931년 사이의 행적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문학수업에 힘쓴 듯하다. 1931 문단 데뷔.	1929년 간도 용정일대에서 임시 교원, 무직업과 가난의 고초를 겪다가 1931년 귀국, 문단 데뷔.
4.재만기간	1932~1942	1932년 다시 간도 용정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창작활동 전개.
5.사망년	1943	1944. 4. 26

27) 박종원·류 만, 앞의 책, pp. 74~75.

“여류작가 강경애(1906~1944)는 황해도 장연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소설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잘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생활이 구차하여 열살이 지나서야 소학교에 들어 갔으며 열여덟 살에는 평양송의여학교에 입학하였다. 여학교 시기 강경애는 반일 민족해방운동과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영향을 받는 한편 선진적인 사회정치서적과 진보적 문학작품들을 읽으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점차적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그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경애는 전 생애 동안 매우 궁핍하게 살았고 이는 여성해방 사상의 내적 원인이 된다. 그는 ‘너무나 기구하고 불우했던 불과 삼십 여년의 생애’²⁸⁾를 살았다고 회고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 1906년 황해도 송화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딸로 태어나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윈 생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당시 아버지를 여윈 우리 모녀는 어느 산골에 사는 고모를 찾아갔고 고모네 집 옆방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곤궁히 지냄으로 해서 하루의 두 끼니 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였던가 싶다…… 곧잘 놀다가도 배만 고프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못 견디게 졸라대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딱하여서 나를 일으켜 달래다 못해서 나의 뺨을 찰싹 때리면 나는 죽는 듯이 울었고……²⁹⁾

생계를 위해 재가한 어머니를 따라 그는 의붓아버지³⁰⁾와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고통은 어머니 개가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개가한 가정에서 의붓아버지 및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나는 다섯 살에 의붓아버지를 섬기게 되었으며, 의붓아버지에게는 소생 아들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찌나 세차고 사납던지, 거의 날마다 어린 나를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태로 뜯어서 도저히 나는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만 빨래나 혹은 어디 볼 일로 집에 안 계시면 언제나 쫓기어 나서 울 뒷산에 올라 망연히 어머님이 오시기를 기다라곤 하였다.³¹⁾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맹휴학에 참가한 것으로하여 출학당한후 강경애는 창작사업에 전력하였다. 생활난에 쫓기어 1929년에 중국동북지방(간도)에 들어갔다가 1931년말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듬해 다시 중국 용정으로 들어가 1939년까지 살면서 문학창작을 진행하였다.”

28) 최태웅 (1963. 2), “고향서 뵈 강경애여사께”, 『현대문학』, p. 264.

29) 강경애 (1978), “내가 좋아하는 술”, 『한국현대문학전집 12』, 삼성출판사, p. 257.

30) 박충록, 앞의 책, p. 281. (의부의 이름은 최도갑이었고, 15살때 죽었다. 그후 형부의 도움으로 평양 송의여자학교에 적을 두게 되고 동맹휴학에 앞장서다가 퇴학당한다)

31) 강경애 (1939), “自書小傳”, 『여류단편집』, 조선일보사, (한국현대문학전집v12, 삼성출판사, 1987, p. 474에서 재인용)

소학교와 여학교 시절 월사금 걱정과 부유한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우울한 시절을 보낸다. 이복언니의 남편인 형부의 도움으로 여학교를 다닌 작가의 생활과 당시의 곤궁함은 소설이라기보다 서간문에 가까운 「원고료 이백원」에도 잘 드러난다.

나는 어려서부터 순조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커서까지라도 順境에 처하지 못한 나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배운 이 지식까지라도 우리 형부의 덕이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평일빔 한벌 색들여 못입어 봤으며 먹는 것이란 언제나 조밥이었구나.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맘대로 학용품을 어디 써 보았겠니, 학기초마다 책을 못 사서 울고 울다가는 겨우 남의 낡은 책을 얻어 가졌으며 종지와 붓이 없어 나의 조그만 가슴은 몇 번이나 달막거렸는지 모른다.³²⁾

또한 「월사금」³³⁾에는 월사금을 못내 선생님께 꾸중 들으며 마침내 친구의 돈을 훔쳤던 회상이 나온다. 이렇듯 유년기의 체험은 가난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는 혼인 후에도 계속되어 심지어 남편 친구 부인이 신던 신발을 가져다 신은 일도 있다. 이와 같이 가난 속에서 궁핍을 체험한 강경애는 여성운동에 관여하게 되는데 근우회 활동이 그것이다.

근우회는 일제하 여성운동단체로서 1927년 5월 서울 종로 YWCA 강당에서 결성된 조직이다. 여성에게 얽매인 각종 불합리한 요소인 봉건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을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지한 상태의 농촌여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전 여성의 계몽을 표방한 실천적 자립운동 단체이다.³⁴⁾ 이후 그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한 개변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한 해를 마감하며 쓴 「송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뚜렷이 밝히고 있다.

사회적으로 완전한 경제적 개변을 보지 못하고는 완전한 여성의 해방도 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해방은 고사하고 더욱더욱 여성은 상품화하고 따라서 인간적 지위에서 점점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근본적 해결이 있어야

32) 강경애 (1935. 2) “원고료 이백원” 「신가정」, p. 193.

33) 강경애 (1933. 2), “월사금”, 「신동아」.

34) 한국여성오천년사 (1990), “여성의 항일투쟁과 계몽”, 명문당, pp. 176~180 참조.

할 것입니다.³⁵⁾

여기서 그는 여성 해방은 사회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을 때 가능하며 이는 유년 시절 궁핍했던 작가의 생활체험과 아울러 '경제적 개변'이야말로 여성해방 해결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혼인 후 식민지 시대 간도체험의 공간적 특수성이 문학 작품에 '여성의 처한 사회모순'의 고발과 자식에 대한 강한 '모성애'로 형상화되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31년 장연군청 서기로 있었던 장하일³⁶⁾과의 혼인이었다. 혼인 후 간도로 이주한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있었고, 가사일을 돌보며 창작활동을 했다. 이때 간도 체험을 바탕으로 「母子」, 「同情」, 「어둠」, 「마약」, 「소금」 등의 작품을 썼다.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정」(1934)은 이주민들의 심각한 궁핍에서 12살 때 아버지의 빚 대신 팔려와 매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산월이에게 화자인 '나'는 동정을 보이는데, 산월이의 인생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있다. 매음소에서 벗어나기를 권유하는 '나'의 말을 듣고 고향을 찾아 나서는 산월이가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다음날 결국 약수터에서 산월이의 죽은 시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母子」(1935)는 남편이 산으로 가 버려자 승호어머니가 된기침을 하는 승호를 업고 약방을 경영하는 부유한 시형댁을 찾아가지만 외면당한다. '잘들 살아요' 라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눈 오는 밤 떠나지만 갈 곳이 없다. 어느 누구도 그들 모자를 받아주지 않는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자 하나 잘 살 수 없다'라는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산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강한 정신력으로 눈속을 헤치며 산으로 향하지만 눈구덩이 속에 점점 빠져 죽어가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다. 그 순간 '아들을 부르며 이 아이들로 하여는 결코 자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사업을 이 아들로 완성하게 하리라'하는 승호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와 모성애가 드러난

35) 강경애(1933. 12), "송년사", 「신가정」, p. 27.

36) 강경애와 1931년에 결혼한 장하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장하일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현재로서 강경애의 글을 의존하는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하일은 강경애에게 있어 남편인 동시에 이념적인 동지요, 두렵고도 지도자적인 존재였음이 분명하다. (채 훈, 앞의 책, pp. 291~292참조.)

작품이다.

이에 비해 「어둠」(1937)은 주인공 영실의 오빠가 항일운동을 하다가 사형 당하고 의 사였던 연인과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칠순 어머니가 사형당한 사실을 모르고 오빠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간호사로서 직업적인 자신감의 결여 등 복합적인 문제로 결국 수술실에서 환자를 오빠로 착각하여 정신 이상자로 잡혀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약」은 아편장이 남편에 의해 중국인 진서방에게 팔린 보듬어머니가 남편과 보듬이를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어느 산 모퉁이길에서 숨이 끊어지는 비극을 맞는다. 남편이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모성애가 드러난 작품이다.

이처럼 간도에서 씌어진 작품들은 작가의 간도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 대부분 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가난 때문에 겪는 고통과 비극적 최후, 자식에 대한 모성애, 그리고 매음문제까지 다루어 여성문제를 작품에 형상화시켰다. 이는 필자가 다룬 장편소설 「소금」에 나타난 진한 '모성애'와 간도에서 겪는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여성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여주인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셋째, 작품속에서 드러난 여주인공은 가부장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관을 지니는 달리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희생적이고 전통적인 여성관이 드러난다.

구여성을 전 아내로 가졌던 보수적인 남편으로부터 가사일이 서툰다는 이유로 냉대와 비웃음을 받으며 잦은 싸움을 한다. 그러나 가사일이 익숙해지면서 뿌듯한 보람을 찾는다. 「漂母의 마음」이라는 수필에서 보면, “가정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고, 양젖물에 손끝이 빨갱게 벗겨지면서까지 빨래를 하여 손끝이 상한 것을 보고 남편은 비웃기까지 했다”고 나타나 있다.

남편과 날마다 싸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이 생각하니 내가 가정일에 서툴러서
그러한듯 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적으나마 가정일에 충실해야 할 것을 깊이 깨닫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³⁷⁾

한마디로 남편은 가사일과 창작활동 모두에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으며, 강경애 역시 순종적으로 거기에 응했다는 사실이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에 대하여 정당한 대

37) 강경애 (1934. 6), “표모의 마음”, 「신가정」, p. 13.

응을 하기보다는 남편의 여성관에 부합되게끔 가사일에 전념함으로써 남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의 여성관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택해 가정에 충실하려 애쓰는 현모양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실제생활은 그녀의 작품 성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강경애의 보수적인 면모는 아쉬움으로 남게 하는 부분이다.

넷째, 남편은 그의 작품 창작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강경애는 글을 쓰면 제일 먼저 남편에게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은 말없이 묵묵히 읽어 본 후에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크게 읽어 보게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나는 언제나 글을 쓰게 되면 맨 먼저 남편에게 보입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묵묵히 읽어 본 후에 나에게로 돌리며 다시 한 번 크게 읽어 보기를 청합니다. 나는 웬일인지 그 순간만이 가슴이 떨떨해지며 남편이 몹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울울한 가슴으로 읽어나려가다가는 남편이 어느 구에 불만을 품게 되었는지를 곧 발견하고 직석에서 다시 펜을 잡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어 혼자 쓰게 될 때에는 이우에 더 갑갑하고 안타까운 때는 없습니다.³⁸⁾

자신이 쓴 원고를 읽고 남편이 칭찬을 하면 '가슴이 뛰어 어쩔 줄 모르는' 순수성과 천진함을 가지기도 하였다. 남편 장하일은 간도에서 항일유격대와 관련된 지하활동을 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남편의 사상적인 영향은 그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부분 이상적 여성상으로서 설정되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즉, 현실개혁의 동반자이거나, 사회모순의 적극적 해결과 조국해방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대부분 사상이 투철한 남성의 아내이거나 비록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으로 생활고로 수난을 받지만 남편의 삶을 이해하는 여성, 혹은 억압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강인해지는 여성이 등장한다.

참고로 강경애의 소설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강경애 (1933. 6), "원고 청 낭독", 「신가정」, pp. 489~490.

구분	작품명	발표지	발표년, 월 일
단편	破琴	朝鮮日報	1931. 1. 27 ~ 2. 3
장편	어머니와 딸	彗星	1931. 5 ~ 1932. 4
		第一線	1932. 10
단편	그녀자	三千里	1932. 10
단편	父子	第一線	1933. 3
연작	젊은 어머니	新家庭	1934. 3
단편	채진	新家庭	1933. 9
단편	蹴球戰	新家庭	1933. 12
단편	有無	新家庭	1934. 2
장편	소금	新家庭	1934. 5 ~ 10
장편	人間問題	東亞日報	1934. 8. 1 ~ 12. 22
단편	同情	青年朝鮮	1934. 10
단편	母子	開關	1935. 1
단편	原稿料二百圓	新家庭	1935. 2
단편	解雇	新東亞	1935. 3
단편	煩惱	新家庭	1935. 6 ~ 7
단편	地下村	朝鮮日報	1936. 3. 1 ~ 4. 3
연작	破鏡	新家庭	1936. 5
단편	長山	大阪毎日新聞	1936
단편	山男	新東亞	1936. 5. 8
단편	어둠	女性	1937. 1 ~ 2
단편	麻藥	女性	1937. 11
단편	김동이(未完)	三千里	1938. 5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작가의 유년시절은 남다른 궁핍의 체험과 아울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 모순을 느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혼인 이후 간도체험은 조국이 처한 식민지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들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모순들을 작품에 형상화시켰다. 이는 앞으로 살펴 볼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 세 편의 작품에서 작가의 의식 및 체험을 기초로 해석할 만한 곳이 드러남이 이를 뒷받침한다.

Ⅲ. 여성 정체성 획득 양상

1. 이론적 배경

한국문학사에서 1930년대는 일반적으로 '여성문학'이 대두한 시기³⁹⁾로 여성작가들이 문단에 진출하여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친 시기라 할 수 있다. 강경애 역시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여성이 처한 현실문제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들의 고통을 다룬 작품을 주로 썼다.

그의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룰 여성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은 여성에게 조진 지워진 금기들을 깨뜨리고 문학형식으로 나타난 여성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학비평과 이론들을 재 평가하고 재 규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⁴⁰⁾ 이처럼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페미니즘 운동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실천적 이론을 배경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운동'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작업은 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문학작품 속의 여성인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모든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의미로 해석되어 남성들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들에게도 다소 기피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그대신 여성해방론이나 여성해방운동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지금처럼 '여성억압을 문제시 하는 모든 담론들과 실천들'을 지칭하는 말로 받아들여진 것은 대략 80년대 말을 넘어서면서 부터였다. 이는 여성이 교육과 사회참여가 증대하면서 여성억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다양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서구에서 '페미니즘'이란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우리가 속한 현실은 학문연구의 영역에서 한쪽은 지배자, 억압자, 가해자이며 '중심'으로, 또 한편은 피해자, 희생자, 피억압자이며 '주변'으로

39) 이재선, 앞의 책, p. 428

40) 최 영, 앞의 책, p. 312 참조.

치 되어 왔다. 그랬을때 지금까지 중심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이 바로 페미니즘 비평이다.⁴¹⁾

7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여성문학에 초점을 맞추고 성차별적 왜곡과 가부장제 모순을 폭로하던 태도를 버리고 여성중심적인 시각을 채택하게 되었다. 페미니즘 비평은 원래 여성 해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작가나 비평가의 성별보다는 여성시각과 여성의식의 유무에 더 관심을 가져왔던게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측면이 여성의 종속을 합리화하고 문학작품에서는 어떤 기법들이 여성종속의 양식을 영구화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원인과 해답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여성작가는 남성작가에 비해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더 깊게 접근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체험을 훨씬 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지배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무의식적 노력으로 자기도 모르게 남성중심적

41) 송지현 (1995), 「다시쓰는 여성과 문학」, 평민사, pp. 125~138 참조.

페미니즘 비평 중 대표적인 비평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성 이미지비평은 여성해방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비평으로 여성독자의 성적정체성을 강조하는 비평이다. 이 비평은 그동안 문학비평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미학이라고 추앙받아 오던 것들이 남성 중심적임을 폭로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저항하는 독자'의 입장을 강조하며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한 해석과 평가로 국한되었던 작품감상에 여성의 시각을 도입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미지 비평은 초기 마르크스 비평이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갖는 태도와 유사한 단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작중인물이 적극적이고 강인한 자립적 태도를 보여 '해방된 여성'의 모델을 제기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을 남성의 보조존재나 성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현상이 팽배한 현실을 무시하고 마냥 양성적이고 이상화된 인물만을 그려내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 페미니즘 문학인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인물이 적극적이냐 회생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억압의 현실이 '문제상황'으로 비치며 '해결의 전망'이 작품속에 구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여성 이미지비평을 통해 왜곡되어 온 여성상의 해방을 추구하는 단계를 거쳐 페미니즘 비평은 점차 여성을 중심에 놓는 여성중심 비평으로 옮겨져 온다. 여성중심 비평은 소외되고 상대화되어 온 여성을 남성의 대상물이 아닌 주체이며 중심에 놓으려는 입장을 강조한다.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와 여성문학의 전통과 특성을 통해 여성성을 구명하려는 여성중심 연구는 여성의 글쓰기가 배제되고 용납되지 않았던 억압의 시대의 여성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고 이해하는 문학사적 연구는 되지만 이미 많은 여성작가들이 자유롭고 활발한 글쓰기를 이행하고 있는 현 시대의 여성작가를 연구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되기가 어렵다. 그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상징화된 장치가 많이 발견되는 작품일수록 여성문학의 전통이 강한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되며 여성적 전통에 따르지 않은 여성작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관을 내면화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남성 지배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편입된다. 그래서 남성작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을 양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류문인이 곧 '페미니즘 작가'는 아니며 페미니즘 비평이 여성작가의 작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⁴²⁾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페미니스트 비평은 기존의 이론들을 수용 또는 변용해서 페미니스트의 시각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요컨대 여성문학의 정체성(identity)⁴³⁾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여성미학을 확립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여성 정체성은 페미니스트 관점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합하면서 여성경험이 어떻게 여성의식으로 변형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볼 세 편의 작품 역시 여주인공이 겪는 현실경험이 여성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여성 정체성 획득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그 개념은 형식과 내용에서 여성에 의한 저자물이 남성의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설명함에 있어 빈틈없는 이론의 틀을 제공해 준다.⁴⁴⁾

엘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는 '자아발견', '정체성' 등의 추구를 여성문학의 주요 테마로 보고 있으며, 주디스 키건 가디너(J. K. Gardiner)는 첫째, '여성 정체성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예비적 은유를 제안하였다. 여성 정체성이 과정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것은 여성들의 기본 정체성(primary identity)이 지니는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것이라⁴⁵⁾할 수 있다. 여성 정체성의 형성은 모녀의 유대감에 형성되는데 이 관계의 탁월성 때문에 '여주인공은 작가의 딸'이라는 두 번째 은유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으로 여성작가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낸시 코도로우(N. Chodrow)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에 대하여 부권주의에 입각한 남성

42) 앞의 책, p. 125. (페미니즘 비평은 기존 문학작품과 비평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철저한 여성시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이미지 비평을 통해 실천되었다.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의 <성의 정치학>,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등은 페미니즘 비평의 초기 지침서로 읽히는 저서들이다.)

43) 정체성(identity)이란 말은 용어면에서 쌍둥이적 개념인 '자아(self)'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면서 문화 및 문학비평의 중심개념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뜻이 명백치 않는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J. K. Gardiner (1988),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공역, 문예출판사, p. 218.)

44) 앞의 책, p. 220.

45) 앞의 책, pp. 220~221 참조.

적 모범형을 설정하고 있는 이론가들⁴⁶⁾의 정체성 이론을 수정한다. 그 이론의 핵심이 되는 것은 남성으로부터 여성 정체성을 구분짓는 기본 특성이다. 즉, 성 정체성(gender identity)⁴⁷⁾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소년과 소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소년인 경우 최초의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정적 관점에서 자신을 하나의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성장하였을 때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벗어남에 따라 자율성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⁴⁸⁾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의 역할을 선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남성은 자신이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특유한 존재,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가치있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⁴⁹⁾.

소녀들의 인격은 이와 매우 다르게 형성된다. 첫째, 소녀는 성 정체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한다. 즉, 소녀는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공생적 병합체로 인식하는 어머니와 비슷하게 닮아감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 둘째, 소녀는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母·幼兒의 공생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양육, 의존, 감정이입 능력은 남성들보다 더 쉽게 발전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독립성·자율성을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46) 에릭슨, 홀랜드와 리히텐슈타인 같은 정체성 이론가들은 인간의(구체적으로 남성의) 정체성에 관한 설명은 필지언정 여성정체성을 남성의 것과 변별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정체성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얻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에릭슨이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명시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성숙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쪽은 남성이고 그 반면 여성은 아이낳는 존재로서의 특수한 역할을 가진다고 말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양성 모두 기본 정체성을 유사한 양식으로 형성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도 역시 남성적 모델을 상정한다. 그는 여성들의 발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언급할 때는 남성적 규범의 예외로 취급하는 정도이다. 홀랜드 역시 리히텐슈타인의 정체성 이론을 비평의 주춧돌로 삼는다. (앞의 책, pp. 220~223 참조.)

47) 우리가 性이라고 통칭하는 용어는 sex와 gender라는 상호 변별되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sex는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에 구분되는 성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gender는 각각의 성에 부여된 사회 문화적 성 역할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생물학적 성차를 폐지해야만 성차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급진주의적 자유주의적 여성해방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해방가들은 생물학적 차이를 성차별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젠더로서의 성이라고 생각한다. (송지현, 앞의 책, p. 18 참조)

48) Oedipal complex : 남자아이가 거세공포를 느끼면서 시작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가 어머니를 향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억압하고 권위와 힘의 근원인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해소된다. (Pam Morris (1997),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p. 324.)

49) 따라서 남성의 인격에 대한 코도로우의 모델은 리히텐슈타인이나 홀랜드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정체성 획득이 어려운 여건에서 강경애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성적·계급적·민족적 모순을 인식하며 정체성을 획득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검토할 것이다.

한편, 코도로우는 여성의 인격은 관계적(reational)이며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전생애를 걸쳐 지속되는 「유동적이고 순환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남성들처럼 단계별로 예정적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적'이므로 남성보다 덜 고착되고 덜 획일적이라고 보고 있다.⁵⁰⁾ 정체성 형성에 있어 여성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남성들보다 여성 정체성 위기는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필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어머니와 딸」을, 전통적 모성체험과 현실대응 의지의 문제는 「소금」을, 하층민 여성의 자각과 관련해서는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작품에서 드러난 여성인물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극복

「어머니와 딸」은 1931년 발표 당시 <혜성>지 편집자주로부터 “이 作은 여러 가지로 보아 결코 낮은 솜씨가 아니다. 도리어 부분부분의 세밀한 묘사 같은 것은 충분히 대가의 그것에도 절색의 업을 만큼 세밀하다. 더구나 현대조선에 있어서 여자로는 누구라도 손대여 보지 못한 큰 노력을 시험하였다”고 평가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식민지 시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2대에 걸친 고통과 아픔을 그린 것이다. 모녀의 삶의 대비를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닌 모순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딸인 ‘옥이’가 사회주의 사상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제한적이거나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 세대에 속하는 인물들은 가난 때문에 지주의 소실로 팔려가는 ‘예쁜이’와, 기생의 몸으로 대학생인 강수를 학비까지 대주며 사랑하지만 끝내 배신당하는 ‘산호주’가 등장한다. 그리고 딸 세대로는 예쁜이의 딸인 옥이가 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지만

50) J. K. Gardiner, 앞의 책, pp. 224~228.

'산호주'에게 구원을 받아 그녀의 민머느리로 성장하게 된다. 주인공 '옥이'가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세대의 삶의 모순을 어떻게 각성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거둬되는 남성들의 배신을 겪지만 어머니 세대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읽지 못함으로써 정체성 획득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딸 세대인 '옥이'는 자기가 처한 억압 상황의 근본적 물음과 해답을 찾음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앞으로 자세히 살펴 보겠다.

1)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배신

옥이의 친어머니인 예쁜이는 가난한 소작인의 딸로 지주인 이춘식의 첩으로 팔려간다. 이춘식은 일년내내 가꾸어 온 농사를 소작인들로부터 철저히 빼앗는 악덕 지주이지만 개에게는 쌀밥을 먹이기까지 하며 첩을 번갈아 들이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이다. 지주의 첩으로 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강할 것이라는 부러움과는 달리 아들을 못낳아 온갖 멸시와 본처의 구박과 학대로 딸과 쫓겨나게 된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고 이어서 어머니, 동생마저 죽게되자 어쩔 수 없이 윤락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쁘고 얌전하다 해서 '이쁜이'로 불렸던 예쁜이는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둘째'와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식민지 하에서 봉건적인 사회제도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예쁜이의 삶은 지주 소작제도의 문제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파생된 것으로써 그의 삶은 급격하게 불행하게 된다.

예쁜이는 사내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어린 옥이마저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내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타락한 여인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참후에 엽분이는 아기를 차자와서 그를 기다리고 집으로 왔다. 그리하여 사내의 꿀을 푸러 주라고 '아가 압바라고 해보아라' 우스면서 아기를 드려다 보았다. 그는 눈이 둥글해서 가만히 잇섰다. '압바다! 그래야 과자도 사오고 명질봄도 해준다.' 엽분이는 성이 와락 나서 '압바라고 불너봐'⁵¹⁾

51) 강경애 (1931), 「어머니와 딸」, 혜성 제 4회.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흔들거리며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도덕성을 잃고 상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여성이라는 존재는 현실로부터 파생되는 법적·제도적 모순이외에도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억압을 받는다. '예쁜이'의 삶은 어쩌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회 현실에서 찾으면 그 해답이 보인다. 이렇듯 그의 작품에는 남성들의 배신이 반복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전통적인 가부장제⁵²⁾의 모순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삶은 '남자의 배신'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다. 어머니 세대로서 기생이었던 산호주가 고학생인 강수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그리고 옥이의 친정어머니인 예쁜이 역시 사내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딸 세대인 '옥이'도 끝까지 남편을 위해 헌신을 했지만 '봉준'이는 신여성을 사랑함으로써 이탈한다. 이렇듯 계속 이어지는 남자들이 배신이 여성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작가는 어머니 세대인 예쁜이의 급격한 타락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담배를 배우고 술을 입에 대었다. 그리고 난봉가를 불렀다. 냄새를 맡든 사내놈들은 숯캐처럼 밤낮을 헤아리지 안코 달여들었다. '여보세요 이리와 안즈세요' 처음 보는 사내에게도 락락 매여달여 손을 잡아끌었다 '술 술 사주어요 술 아니면 난 못살아요' 엽분이는 술만 취하면 돌너안진 사내놈들에게 헛욕질을 대고 퍼부며 보기에 입을 버리고 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휘모리 장단을 쳐서 사내놈들 쫓차버린 후 암마당 풀마당에 털석 주저안저 고함을 치며 울었다.⁵³⁾

예쁜이의 이런 타락은 사내와 딸 사이를 오가면서까지 사내의 환심을 얻으려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담배와, 술을 입에 대는, 그러다가 난봉가를 부르고 고함을 치며 울어대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52) 이 글에서 "가부장제(patriarchy)"는 남성지배 권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영속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 제도를 의미한다. (이소영, 정정호 공편 (1992),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p. 183.) 또한 주로 성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는 사회제도가 남성집단이 여성집단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미현 (1996),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pp. 63~64.) 가부장제는 어원적으로 '아버지의 지배'를 뜻하는데 흔히 '남성의 지배'로 해석되는게 보편적이다.

53) 강경애, 앞의 책, 제4회.

본래 여성의 자기 진술은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공식화된 표현 양식으로 시나 소설뿐 아니라 일기나 사사로운 문학형태, 그리고 문자화되기 이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떠도는 언술행위인 신세타령, 교훈적 생애 이야기, 술 마시며 나누는 얘기 등, 기록에 남지는 않지만 '이야기하는' 행위들은 모두 자기 진술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악쓰기'나 주기적인 울음 행위와 같이 말로 구체화되기 이전의 소리도 여성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적 기법에 포함된다. 이 다양한 자기 진술 양식들은 여성이 가부장적인 지배질서 안에서 받는 억압에 대하여 적응하고 인식하고 또 저항하는 전략⁵⁴⁾들이라 할 수 있다. 예쁜이는 각박한 현실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술타령과 온갖 욕설을 퍼 부으며 우는 차원으로 감정적 대응과 해소에 머물고 있다

악설과 고탈을 치며 우는 행위는 예쁜이가 그나마 자기의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의 현실앞에 놓여있는 고통을 한 번 이겨보려는 자기 진술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회복하려는 의지는 그녀가 처해 있는 현실 모순에 비해 너무나 나약하다. 이런 어머니 세대인 예쁜이의 나약한 삶의 태도는, 딸의 세대인 옥이를 통해 극복된다.

이에 반해 기생학교를 졸업한 산호주는 평양의 유명한 기녀였다. 산호주라면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많은 부호 자제들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독특하면서도 지조있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기생인 자기의 처지와 현실을 '쓰라림'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평범한 여인네의 소박한 삶을 부러워 한다.

'엇지 보면 나도 남과 가티 남편을 어더 아들 딸났코 재미있게 사라불가 예라! 생각한들 무엇하리 나가튼 년에게' 나이 한두 살 만허 갈수록 그의 가슴은 이러한 생각으로 갖득 채웠든 것이다⁵⁵⁾.

결국 자신의 신분인 기녀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기녀들은 가부장권과 신분제 양쪽에 의해 어떤 계층보다도 소외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틀을 거부하고자 했던 기녀들의 경우, 그들이 체험한 억압의식은 어떤 계층보다 깊고 강했으리

54) 김성례 (1994),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김경수 외 지음, 고려원, p. 12.

55) 강경애, 앞의 책, 제4회.

라 짐작⁵⁶⁾할 수 있는데 ‘산호주’ 역시 이러한 억압의식은 보통 여성들이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억압의식을 잠재워 간 것과는 달리 산호주는 특수계층인 기녀로서 잠재된 억압의식은 평범한 고학생인 ‘강수’를 사랑하게 되므로써 해소 되는 듯 싶었다. 즉, 평범한 여인네의 삶을 부러워한 만큼 보통 여인네처럼 소박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녀의 특수한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수의 학비를 대 주며 동경유학까지 시켜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산호주를 배신하고 만다. 말 한 마디 없이 깨끗한 처녀인 여학생과 혼인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강수는 오히려 예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강수의 배신에서 남성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부정상이 고발되고 있고 따라서 성차별에 의한 여성 억압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배신에서 가부장제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가는 강수의 배신이 산호주의 삶에 파괴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그녀의 개인적인 인격, 즉 강인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⁷⁾ 더 나아가 강수 역시 산호주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는 ‘환경’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음을 시인한다. 여기에서 ‘환경’이란 가부장제도 하에서의 ‘환경’이라 생각된다. 즉, ‘강수’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품성으로 모든 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적 모순을 해결했을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용서하여 주시겠소. 물론 영리한 당신인 것만큼 이번 일에 대하여 관서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네 용서하시지요.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리 만들었소마는 그러나 당신만은 내가 잊을 수가 없소’⁵⁸⁾.

이미 혼인해 버린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강수의 이기적인 요구와 더불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이율배반적인 태도에서 산호주는 어

56) 신은경, “조선조 여성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2)—기녀의 언술을 중심으로”, 앞의 책, p. 37

57) 송인화 (1995), “강경애론 - 하층민 여성의 비극과 자기인식의 도정”,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p. 269.

58) 강경애, 전계서, 1932, 제5회.

떠난 문제의식을 갖지도,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대해서도 냉철한 비판을 가하지 못한다.

본래 기녀들은 봉건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사회에서도 여성에게 부과된 온갖 윤리에 얽매이지 않고 남성을 상대로 그들에게 향락을 제공하는 직업여성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을 상대로 하기에 그들의 사고가 어느 정도 남성에게 부분적으로 동화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윤리의 틀과 구속에서 벗어난 지적인 여성집단인 동시에 가무를 겸비한 일종의 예능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부종사라든가 몇몇한 혼인절차를 거친 정실부인의 자리는 거리가 멀었으며 따라서 일반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⁵⁹⁾. 이러한 의식을 기녀인 산호주 역시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배신에 대한 충격은 외형상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강수의 배신'으로 자기의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달으며, '세상은 그런 것이다' 이 한마디로 오류년간 자기의 커다란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한다. 기녀인 산호주는 여성이면서 여성의 본질에서 빚겨가 있는 특수층 여성인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체험은 상실감, 깨어짐, 상처, 결손, 결핍, 공백, 틈, 균열등과 같은 결여(lack)의 심리현상을 수반한다⁶⁰⁾

강수로부터 배신의 상처는 마침내 산호주로 하여금 병어리라는 별명까지 듣게 한다. 이렇듯 가부장 제도에서는 독특하고 지조 있었던 개인적인 인격이나 품성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야만 가능성을 작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어 병어리라는 별명까지 듣는 산호주의 상실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남자의 배신, 즉 남녀 관계의 종말 등 위기가 닥치면 여성은 그 어떤 때 보다도 심각한 자아상실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 위기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든지 아니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아를 획득해 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⁶¹⁾.

산호주 역시 남자의 배신으로 병어리라는 별명까지 듣게되는 침묵의 생활과 위기의 생활이었지만 늦게나마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비록 아버지 없는 '결손 가정'

59) 신은경, 앞의 논문, p. 80 (보통 여성들이 어머니가 됨과 동시에 여성으로부터 서서히 모성의 존재로 변모해 가는 것과는 달리, 기녀들은 이러한 변모의 계기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몇몇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60) 신은경, 앞의 논문, p. 81.

61) Gloria, Bowles 편 (1986), 「여성학의 이론」, 정금자 역, 을유문화사, p 172.

이지만 '가정'을 꾸림으로써 자아상실의 침묵속에서 탈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여성 정체성의 형성은 남자들이 직선적·발전적 전개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여성은 아이를 잉태·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순환적이고 유동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코도로우의 견해를 앞에서 기술하였다. 보통 여성들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가졌던 관계를 통해 재생산하는 이중성을 경험한다.

그러나 보통 여성에게는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 모성성의 재생산이 '기녀'라는 신분⁶²⁾에 의해 사회적으로 거부되거나 혹은 음지화되는 특수한 경험⁶²⁾을 겪게 되는데 기녀인 산호주는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키우게 되므로써 '결손가정'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산호주에게 현실에 대한 의지와 애착심을 갖게 되는 계기점은 '아들을 갖게됨'으로 상처난 자아를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는 급작스런 의식의 변화를 작가는 제시하려 한 것이다.

봉준이가 자라날수록 그의 희망은 커졌다. 하야 살림살이를 잊지는수가업시 일을 만드러가며 잠시도 놀지 안었다. 일군을 다리고 밭 몇말직이를 손수 붓졌다. 그리하여 여름에는 농사뒀치기에 눈코잡이 업시 밭부게 지냈다. 그러나 '엄마' 하는 소리만 드르면 어려운 줄을 모르고 악하고 일을 하였다⁶³⁾.

강수의 배신으로 은둔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예쁜이와 마찬가지로 산호주는 가부장제라는 모순의 굴레에서 자신들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머니 세대인 예쁜이와 산호주는 사회 모순의 공동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라는 민족사적 불행과 주체성을 훼손하는 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예쁜이의 성적·경제적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산호주의 삶은 파행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작가는 이러한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왜곡된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한편 작가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인공인 옥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

62) 신은경, 앞의 논문, p. 81.

63) 강경애, 전제서, 제5회.

다.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비극으로 인식하며 이의 해결은 옥이가 모순을 발견하고 자아를 각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그 해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2) 의식의 각성

‘강수’의 배신으로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던 산호주는 옆집에 사는 ‘예쁜이’의 딸 ‘옥이’의 영특함에 그를 믿며느리로 삼게 되었다.

친어머니는 ‘예쁜이’이지만 옥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산호주’이다. “봉준을 잘 길러야 한다”는 ‘산호주’의 유언은 남편 봉준에게 절대적인 희생과 순종을 보이지만, 봉준은 오히려 자기 친구인 ‘재일’의 동생이자 신여성인 숙희를 사랑한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를 버리고 어딘 말쑥한 여학생과 함께 살 때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어쩔까? 이혼을 해 주어야 옳을까? 이대로 견디 배겨야 할까? 그는 한참이나 바람벽을 노려보다가 입술을 꼭 다물고, ‘망설이는 것부터도 벌써 어머니의 유언을 잊은거다! 견디자! 어머니의 둘도 없는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나의 남편인 것이다!’⁶⁴⁾



옥이의 어머니인 ‘예쁜이’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로 알았던 옥이는 자기의 남편 봉준이 신여성 ‘숙희’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요컨대 기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넌시 코도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여성 인격이 지니는 유동적이고 과정적인 성질은 특히 딸과 어머니의 관계로부터 야기된다고 본다. 딸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동일시를 통해 감정이입과 공생적 융합을 위한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공생적 융합체로 인식한 딸은 어머니와 유사하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양상을 띤다. 따라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64) 강경애, 전계서, 제1회.

논의는 모녀의 유대관계의 특수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모성을 다룬 작품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 및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가 딸의 성숙한 여성 정체성 획득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⁶⁵⁾한다.

즉, 친어머니 예쁜이가 사내에게 버림받아 매일 술과 타령으로 부르며 신세를 한탄했던 체념적인 모습을 자기 남편인 봉준의 배신으로 어머니와 자기의 처지를 동일시하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옥이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이것은 정체성 획득에 중요한 요소인 '어머니와 딸의 동일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리사문안으로 드러서자 맨땅에 펼쳐 주저안지며 '어머니! 당신도 깨끗한 처녀이겠지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아 얼마나 쓰림을 당하시다 못해서 곱고 고흔 어머니의 그 깨끗한 마음이 흐리어졌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쓰라렸던 가슴을 알겠습니다. 괴롭을 잊기위하여 술을 마시고 마시고 우자 아엿습니까! 오 그 쓰림은 나에게도 왔습니다!⁶⁶⁾

그의 소설에서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요인은 남성들의 배신이다. 송인화가 지적하듯 그의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배신 모티프는 대부분 남성들에 의한 것으로서 이기적인 남성들은 물질과 마음을 들여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여자들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가책도 없이 떠나버린다. 이러한 배신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남성들의 부정상을 고발하는 의미⁶⁷⁾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배신을 통해 여성들의 자기가 처해 있는 모순들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옥이는 전통적인 여인상을 미덕으로 삼고 남편을 위한 삶을 산다.

산호주의 민며느리인 옥이는 남편 봉준이 동경으로 간 후부터 행동이 수상쩍은게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그로서는 차마 남편에게 의심을 품지 못한다. 봉준이 신교육을 받은 숙희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자기의 배우지 못함이 그 원인을 자각하고 옥이는 이 계기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65) J. K. Gardiner, 앞의 책, pp. 230~231 참조.

66) 강경애, 전계서, 제1회.

67) 송인화, 앞의 책, pp. 268~269.

남편과 숙희가 번가라 떠올랐다. 점점 자신은 아무것으로도 생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만히 알고 쓰기도 잘할 터이지. 나도 배우면 되겠지'⁶⁸⁾

시어머니인 산호주의 사랑과, 함께 자란 봉준이를 생각하면서 「에라! 아직 철이 업서 저러기는 것이겠지 도라가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참자!」라고 하며 숙희와 남편과의 관계는 애써 '봉준이의 철이 없음'으로 돌린다. 그리고 자기 본분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수동성·소극성·우유부단성·순응성 등의 특질로 규정되기에 그에 합당한 여성상이 높이 평가 받은게 사실이다.⁶⁹⁾ 이런 전통 속에서 여성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옥이 역시 전통적인 여성관을 시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기에 남편을 위해 그저 '참자'라고 하면서 희생적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기에다 숙희에 대한 짝사랑으로 상사병으로 앓게 된 남편을 위해 숙희를 찾아가는 헌신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그리고는 남편을 위해 한 번만이라도 집에 와 달라고 간청 하는 것이다. 희생과 순종의 전통적인 여인상이 모습이다.

한참이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얼굴을 번쩍들고 숙희를 똑똑히 보았다. 「숙희씨! 이런 말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옥의 입술은 푸르르 떨렸다. 그리고 두 불이 확끈 달기 시작하였다. 「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숙희는 심상스레 말하였다. 「숙희씨 잠깐만 우리집에 놀러가십시오. 긴급히 불 일이 잇는데요」 「네 무슨 불일인지 대강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채 맞지 못하여 「숙희씨 당신은 참으로 모르십니까 한 때를 도라봐 주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는지요……⁷⁰⁾

한편, 봉준의 친구인 '재일'은 봉준의 아내 옥이를 짝사랑하고 이를 눈치 챈 봉준이는 재일 사이에 아내와 여동생을 두고 일종의 교환관계가 성립된다. 가부장적 지배질서 내에서 이들은 여성을 대상화하여 교환의 형태로 주고 받는 것이다. 이러한 봉준과 재일의 태

68) 강경애, 전계서, 1932, 제6회.

69) 김미현 (1996),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pp. 292~293 참조.

70) 강경애, 전계서, 제9회.

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랑조차 여성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여성들 주변의 남성인물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봉건적인 모습이다.⁷¹⁾ 옥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봉준과 재일의 의도를 뒤늦게나마 파악하고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혼인의 굴레에 얽매인 인생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 나는 잊지라우!」이렇게 부르짖을 때 「잊지 마라 남자를 잊지 마라라!」 번개가티 옥의 가슴을 두드려 주었다. --- 그의 시어머니께서 림종시에 턱을 가불가불 채면서 마즈막으로 남긴 부르짖음이였다. 어린 옥이는 무슨 말이고 하고도 너무나 도량도량한 힘잇는 말임에 그의 머리에 콧 질여졌든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그는 입속으로 외이고 잇섯다. 「잊지마라 남자를 잊지마라 !」 한번 다시 불러보았다. 얼마나 잘 아르고 하신 말씀이라! 그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든든한 의지가 생긴 듯 십혔다. 따라서 북받쳤든 설움이 가라안고 것든해짐을 늦겼다. 이 말한마디가 오늘날 옥에게 잇어서는 얼마나 귀한 보배였든지 몰났다. 오 어머니 당님께서 남기시고가신 그귀한 말씀은 내가슴에 내가슴에 품었나이다. 그는 눈을 스프르 감었다.⁷²⁾

옥이의 문제의식은 ‘남자를 잊지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떠 올리며 어머니 세대의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야 함을 인식한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도 봉준을 통해 깨닫게 된다. 남편과 ‘재일’의 부도덕성에 현재의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신을 남편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관계에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정체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와 구질서에 대한 회의와 문제의식은 옥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희생과 복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아로 설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1) 고은미 (1996), “강경애 소설의 여성 의식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8 참조.

72) 강경애, 전계서, 제8회.

3) 정체성의 획득

조세핀 도노반은 여성의식의 변화는 추상적인 철학자이거나 혹은 외부적이고 극적인 사건과 관계 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사건에 대한 자각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⁷³⁾. 즉 옥이는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영실의 오빠의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심리적인 변화가 갑자스럽게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이는 현실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고 남편을 위해 희생과 복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닫게 된다.

옥이는 그들이 가는 뒷맵시를 바라보았다. 몇 백명의 노동자를 위하여 자기몸을 희생해 바친영실옴바다. 이렇케 생각하고 나니 정신이 빗작 들었다. 「옴바! 내옴바도 되는 것이다!」 영실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간 넓은 길을 꺾어 바라 보았다. 「봐라!」 옥이는 웃독서서 무엇을 김히 생각하더니 「옴바가 밟고간 이 길로 우리도 가야한다!」 그의 음성은 떨어 나왔다.⁷⁴⁾

옥이는 종로에서 영실이 오빠가 거리의 노동자들과 함께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란다. 여기서 옥이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남편과의 개인적 문제를 영실 오빠가 간 길을 우리도 가야한다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게 된다. 후반부에 들어서 작품의 무리한 구성을 노출시키지만 자기 삶을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 세대와 대비시켜 딸의 세대인 옥이를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그려내고자 한 작가 정신이 나타난다.

옥이의 갈등은 남편과 조흔한 구여성인 자신과 신여성으로 제시된 숙희와의 갈등이었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영실 오빠의 삶을 뒤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옥이의 모습을 당시 암울한 식민지 현실이었던

73) 조세핀 도노반은 여성작가는 심리적, 개인적, 감정적인 삶의 내적 세부사항을 분석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성산문 문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남성산문 작가들에게 보이는 권위적이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문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세핀 도노반 (1988), "페미니스트 문체비평",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공저, pp.95~96.)

74) 강경애, 전계서, 제10회.

시대성과 연결시키면 그리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옥이의 사회 모순을 깨닫는 사회적 각성은 에쁜이와 산호주인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체념과 운명의 삶을 딛고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정체성의 획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로에서 영실을 보낸 옥이는 자기의 과거를 꼼꼼히 생각하며 걸었다. 「나는 언더한 길을 걸었나? 안이 나도 사람인가?」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줄 아니 사람이랄까. 울고 옷을 줄 아니 사람이랄까? 응- 안이다! 울었다면 나를 위하여 울었더냐 울었다면 진정한 나의 웃음이었더냐--- 모두가 봉준을 위하여 웃음이었다. 두리몽수리 삶이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식히려고 안타깝게 울었던 것이었다. 「불쌍한 인간!」 그는 이리케 부르짖고 대문으로 드러섰다.⁷⁵⁾

한편 숙회를 끝내 잊지 못하는 남편 봉준을 보며 옥이는 끝내 냉철한 비판을 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는 사고를 보여주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봉준이를 ‘불쌍한 인간’으로 치부하는 대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숙회 때문에 괴로워하고 끝내 상사병까지 얻은 그와 길거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잡혀가는 영실 오빠와의 모습의 서로 강렬한 대비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시름업시 바라본 옥이는 속으로 「불쌍한 인간! 차라리 울바에는 너를 위하여 울어라 좀 더 나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울어라. 핫나 계집애를 생각하여 운다는 것은 너무나 갑업는 울음이 안이냐!」 이리케 부르짖을 때 앓아본 영실의 옴바가 머리에 똑똑히 나타나는 것이었다.⁷⁶⁾

이렇게 격한 옥이의 의식의 변화는 논자들 사이에서 해석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상경은 농촌에서 중농으로 살던 옥이가 갑자기 노동자의 현실에 동조하는 계급적 각성을 하는 것은 필연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여성해방에 대한 전망이 없었던 작가가 조급하게 관념을 노출시킨 결과⁷⁷⁾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서정자는 옥이가 각성하는 계기

75) 강경애, 전계서, 제10회.

76) 강경애, 전계서, 제10회.

77) 이상경, 앞의 논문, p. 49.

를 상경 이후 그녀가 받은 신교육에서 찾고 각성의 내용 역시 계급성이나 정치성은 없는 것으로서 다만 남편과 이혼하기 위한 윤리적 계기에 불과하다⁷⁸⁾고 보아 옥이의 각성이 갖는 사상적 의미를 축소시켜 해석한다.

한편 송인화는 옥이가 자신의 계급적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충격적 계기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의식이 각성되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⁷⁹⁾. 이러한 옥이의 각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에도 옥이의 '갑자스러운 의식의 각성'은 작품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옥이의 삶의 변화과정에서 의식의 전환이 구체적인 과정없이 의식화된 인물로 그리고 있더라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회복하는 옥이의 신념에다 가치를 더 둔 작가정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옥이는 비로소 희생자, 피억압자, 피해자인 '주변인'에서 진정한 삶의 '중심'에 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정체성을 획득한 것이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일제치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여성문제가 사회문제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현실을 읽는 옥이의 태도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옥이의 정체성 획득양상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세대인 '예쁜이'와 '산호주'의 삶과는 달리 여성 정체성을 획득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타락한 생활에 찌들고 술타령과 악설을 퍼부으며 하루하루 생활해 가던 어머니 '예쁜이'의 자포자기한 상황을,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와 진정한 동일선상에서 그와 마음으로나마 화해하게 됨으로써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남편의 배신을 극복하고 가부장제의 모순을 깨닫게 됨으로써 여성 정체성 발견과 아울러 진정한 여성 정체성 획득의 길로 나아간다. 이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남편에게 있어 의존적인 태도를 벗어나 노동자인 영실 오빠가 간 길을 자기도 따르겠다는 사회적 각성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검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8)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앞의 책, pp. 45~67.

79) 송인화, 앞의 책, p. 275.

2. 전통적 모성체험과 현실인식

「소금」은 「어머니와 딸」과 「인간문제」의 중간 작품으로 작가가 대부분의 작품활동을 했던 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간도는 “대산림으로 쫓기어 ××를 들고 ×××하는 그들! 이 땅을 싸고도는 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저 극단과 극단으로 중간성을 잃어버린 땅”⁸⁰⁾으로 식민지 시대의 또 다른 공간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간도로 이주하여 직접 체험한 간도의 비극적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으로 「소금」, 「모자」, 「동정」, 「어둠」, 「마약」이 있다. 이 중에서 「소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간도에서 작품활동을 했다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간도지방이 가지는 공간적 특수성과 그의 작품세계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창작상의 성과를 가늠하고 문학사에 자리매김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박충록은 “간도 이주민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계급적 각성과정을 통하여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망국노의 설움을 겪고 있는 조선민중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 주면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선 항일 유격대의 모습과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의 사상감정을 암시적으로 반영한 작품이 바로 「소금」이다⁸¹⁾”라고 평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간도지방에서 일제와 항일세력 사이에서 고통 받는 조선 민중의 현실을 보여준 작품이다. 하지만 장편적 구성이면서도 중편 정도의 분량밖에 안되어 소설 끝부분에 가서 갑작스러운 여성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주인공 봉염어머니가 공산당에게는 아들을, 자위단에게는 남편의 목숨을 빼앗기고, 중국인 지주에게 성적인 짓밟힘을 당한 여인의 분노와 좌절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이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80) 강경애 (1933. 12), “이역의 달밤”, 「신동아」, p. 145.

81) 박충록, 앞의 책, p.283.

1) 가난과 성적·민족 모순

소작농이었던 봉염이네는 지주인 참봉영감에게 시달리다 못해 바가지 몇 짝을 달고 간도에 정착한다. 중국인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되었으나, 중국 군대인 보위단들에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여 돈이나 쌀을 빼앗기게 된다. 그 이후 공산당과 자×단들에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보위단들은 그들이 받는 바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한 번 두 번 빼앗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으레 할 것으로 알고 아무 주저없이 백주에도 농민을 위협하여 빼앗곤 하였다. 그러니 농민들은 보위단 뒤편으로 언제나 돈이나 기타 쌀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한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준비해 두곤 하였다⁸²⁾.

고향에서의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간도로 이주해 왔지만, 그 곳에는 또 다른 시련이 놓여 있었다. 간도로 온 지 십여 년 만에 일구어낸 게 곡식은 심지어 못하고 겨우 감자를 심을 수 있는 밭을 개간하였다. 봉염어머니는 '참봉놈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가지고 땅을 파지만 자기들에게 닥치는 것은 불행과 궁핍이었다. 이를 '팔자'로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이런 고생을 시키고……'라며 한탄한다. 이처럼 자기 삶을 '팔자'로 받아들이는 봉염어머니처럼 진정한 여성됨의 자각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근대가 여성에게 가하는 중첩된 모순들이 여성됨의 실현을 가로막으면서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주체적 자아로 설 가능성을 교묘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염어머니는 특히 '소금'으로 상징되는 고향의 향수와 간도의 궁핍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에게 소금기 없는 반찬을 내놓기가 무척이나 송구스러워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여성이다.

82) 강경애, "소금", 『한국소설문학대계, 17』, p. 307.

소금……하며 그는 무의식간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또 다시 고향을 그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향서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건만……(중간생략)…… 그는 소금 때문에 남몰래 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소금 한 말에 이 원 이십전! 농가에서는 단번에 한 말을 사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 같은 것도 단번에 담그지를 못하고 소금 생기는 대로 담그다가도 어떤 때는 매주만 썩여서 장이라고 먹곤 하였다. 장이 싱거우니 온갖 찬이 싱거웠다. 끼니 때가 되면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맘이 송구하였다. …… 그는 입 안의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슬며시 술을 놓고 돌아 앉았다. 그리고 해종일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에게 등허리에 땀이 훈훈하게 나도록 훌훌 마시게 국물을 만들어 놓지 못한 자기! 과연 자기를 아내라고 할 것일까!83)

가난 때문에 남편에게 늘 싱거운 반찬을 내 놓을 수밖에 없어 매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과 궁핍으로 딸 봉염이가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상황에서 봉염어머니의 태도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딸의 운동화를 사 줄 돈이 있으면 아들 봉식의 공부를 더 시키겠다고 욕박지르며 딸과 심한 말다툼을 한다. 여기서 작가는 봉염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세대 대부분이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박혀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계집애가 왜 저 모양이야. 뭘 좀 안다고 어미 대답만 툭툭하고, 이에 이놈의 계집애 어미가 무슨 말을 하면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툭툭 무슨 아가리질이나! 그 래 네 수작이 옳으냐! 우리는 돈 없다……너 운동화 사 줄 돈이 있으면 봉식이 공부를 더 시키겠다84).

봉염어머니는 가난으로 인하여 딸에게 “우리 같은 거지들에게 태어났니, 돈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나지. 자식! 흥 자식이 다 뭐야!”하고 소리치지만 “이에 이년의 계집애 왜 돈 없어. 밑천 없이 남의 땅 붙이니 없지. 내 땅만 있으면……”하면서 ‘땅의 없음’을 개탄한다. 그러나 식민지 현실속에 파생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왜 자

83) 소금, 앞의 책, p. 310.

84) 소금, 앞의 책, p. 312.

신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에 딸 봉염이는 운동화를 신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돈이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던 선생님을 떠올린다. 「어머니와 딸」에 나타난 '옥이' 역시 의식 전환이 교육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 졌듯이 딸 '봉염'이도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와는 달리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난다. 작가는 암암리에 사회구조의 모순을 읽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작품에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어머니의 언짢아 하는 모양을 바라보는 봉염이는 작년 가을에 타작마당이 얼핏 떠오른다. 그때 여름내 농사지은 벼를 팡둥에게 전부 빼앗긴 그때의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머니의 얼굴빛은 그때와 꼭 같았다. 그리고 아무 반항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아버지! 불쌍함이 지나쳐서 비굴하게 보이는 어머니!⁸⁵⁾

딸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반항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불쌍함이 지나쳐 비굴하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당시 모든 여성들의 모습일 것이다.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중국으로 왔지만 이곳은 온갖 모순들이 집산된 지역이다.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성이 갖는 민족적 모순과 한국 여성들이 가부장제와 봉건성과 자본성이 혼재해 있는 남성중심적인 제도들에 의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첨예하게 드러난다. 봉염어머니가 겪는 삶의 무게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아울러 팡둥과 자위단원들에게 가깝게 지내던 남편마저 잃게 되고 아들 봉식이마저 집을 나가면서 가중된다.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찾으러 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용정'까지 오게 된다. '용정'에 있는 중국인 지주 '팡둥'에게 아들을 찾아 달라고 애원하며, 팡둥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소금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그 집에서 '그 비싼 소금을 맘대로 살 수 있는 돈을 왜 열심히 일을 하는 자기네는 모으지 못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본다. 여성은 이처럼 자기가 처한 현실을 내적·외적으로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의식을 문제삼게 된다. 봉염어머니 역시 자기네 삶과 팡둥의 삶을 대비시켜 문제시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이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유지되는 봉건적 경제제도와 식민지 상황

85) 소금, 앞의 책, p. 313.

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민족적 불행을 인식하지는 못 한다.

한편, 팡동의 아내가 없는 어느날 팡동에게 봉염어머니는 성적 유린을 당하고 만다. 하지만 봉염어머니는 어떠한 피해의식이나 문제의식 보다는 오히려 팡동에게 애정을 받음으로써 계급적 상승을 피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석양이 되면 오늘이나 오려나? 하고 가슴을 졸였다. 팡동이 온대야 그에게 그리 기쁠 것도 없건만 어쩐지 그는 팡동이 기다려지고 그리웠다. 오면 좋으련만……이번에는 꼭 말을 해야지 무어라구? 그 다음 말은 생각나지 않고 두 귀가 화끈 단다. (중간 생략)

그날밤 후로는 팡동의 태도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냉랭해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점잖으신 어른이고 더구나 성미 까다로운 아내가 곁에 있으니 저러나 보다 하였으나 시일이 지날수록 원망스러움이 약간 머리를 들었다. 반면에 끝없는 정이 보이지 않는 줄을 타고 팡동에게 자꾸 쏠리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는 한숨을 후-쉬며 이맛가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언제나 자기도 팡동을 대하여 주저없이 말도 건네고 사랑을 받아볼까? 생각만이라도 그는 진저리가 나도록 좋았다. 그러나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깨닫자 그는 울고 싶었다. 그리고 팡동의 아내가 끝없이 부러웠다.⁸⁶⁾

팡동의 태도가 냉랭하자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를 돌이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봉염어머니의 의식의 상승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팡동의 아내를 부러워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매개로 계급 상승을 피하는 봉염어머니의 태도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의존도의 심각성을 보이는 한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팡동이 아내처럼 편안한 삶을 살고자하는 절실함이 담겨져 있다. 자신이 성적 유린을 당한 이후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그렇지만 간도에서의 가난과 중국인 지주에게 당한 성적 모순과 식민지 시대에 사는

86) 소금, 앞의 책, p. 322.

민족으로서 민족적 모순의 삼중고는 전통적 여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현실대응 의지를 가지면서 정체성 획득의 길로 나아간다.

2) 모성애의 확인과 현실대응 의지

여성이 처한 상황의 핵심적 구조물로서 생산·출산·성관계·자녀양육 등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⁸⁷⁾ 이 네 가지는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여성의 지위를 형성하게 되는 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의 도덕적 인식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모성' 체험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 양육의 문제이다. 여성에게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성⁸⁸⁾을 요구하는 어머니라는 위치가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모성 자각이 여성 인물로 하여금 정체성 획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소금」에 나타난 봉염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봉염어머니는 중국인 지주 팽동의 애를 가지게 된 것을 알고 애를 유산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쓰지만 실패한다. 원하지 않는 자식이기에 '벽에다 배를 부딪치고 양젓물을 마시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원초적인 모성 때문에 차마 유산을 시키지 못한다.



87) 줄리엣 미첼 (1980), "여성의 지위", 이효재 (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p. 71.

88) 모성성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정신적 우월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기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서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지위는 가정이며 여성의 임무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념이 헌신과 희생 뒤에 오는 여성의 자아상실을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모순을 인식한 여성들은 어머니로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항상 철저하게 비이기적이고 마땅히 비이기적이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여성들로 하여금 정역살이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모성성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경우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억압적인 경우 모두 있다는 모성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면에서의 모성은 이성을 초월한 지혜나 도우려는 본능, 자비로움, 풍성함이 깃든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억압적인 면에서의 모성은 여성들의 지적 능력 보다는 본능을 자아실현 보다는 이타심을 우선시 한다. (김미현, 앞의 책, pp. 283~292 참조)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모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뱃속에 애 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산시키려고 별짓을 다하여 보았다. 배를 쥐어박아도 보고 일부러 각 넘어지기도 하며 벽에다 배를 대고 탕탕 부딪쳐도 보았다. 그러고도 유산이 되지를 알아서 나중에는 양젓물을 마시려고 캄캄한 밤중에 그 몇 번이나 일어났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냉면은 먹고 싶었다. 누가 곁에다 감추고서 주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먹고 싶은 냉면을 못 먹어보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애달픈 일이다. 더구나 봉염이를 생각하고는 그만 양젓물 그릇을 쏟치고 말았던 것이다.⁸⁹⁾

한편 아들 봉식이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처형 당하게 된다. 공산당이라면 치를 떠는 봉염어머니는 한 헛간에서 광둥이 애를 비 오는 날 밤에 아무도 몰래 낳아서 죽일 결심까지 한다. 그러나 원초적인 모성 때문에 차마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즉,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로 그 계획은 실패한다.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더듬어 그의 목을 꼭 쥐려 하였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 그는 자기의 숨이 턱 막히며 쥐려는 손 끝에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애를 낳은 이후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며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을 위하여 꼭 산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삶의 환희'까지 느낀다. 그는 아기를 그의 땀가슴속에 꼭 대며 자기가 아무렇게 서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왜 죽어, 꼭 산다. 너희들을 위하여 꼭 산다 하고 중얼거렸다. 애를 낳기 전에는 아니 보다는 이 아픔을 겪기 전에는 죽는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진심으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마침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아차아차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소생한 그는 어쩐지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삶의 환희를 느꼈다.⁹⁰⁾

애를 낳은 이후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심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모성'이 죽음에 대한 열망에서 삶의 환희로 바뀔 정도로 강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강경

89) 소금, 앞의 책, p. 323.

90) 소금, 앞의 책, p. 330.

애의 작품에 드러난 '모성애'는 「소금」과 같이 간도에서 씌어진 「母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승호 어머니는 백일해 기침으로 아파하는 아들 '승호'를 두고 돈이 없어 의사에게 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작품 「소금」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처절하다. 승호어머니는 아들의 백일해 기침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입에다가 그녀의 입을 대고 빨며 승호의 기침이 몽땅 자기에게로 옮겨 왔으면 바란다. 그래서 떨어지는 눈송이가 기침에 약이 되지 않을까 하여 눈송이를 받아 먹이기까지 하는 강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이다.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성애'는 극도의 궁핍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자식의 생존'과 '자기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벽과 부딪힌다.

「소금」에 나타난 봉염어머니의 '모성애'는 자식 때문에 '죽을 결심'까지 하는 위기의 모습에서 다시 자식 때문에 '삶의 환희'까지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가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배고픔이라는 냉엄한 현실은 '자기의 생존'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다. 즉, 봉염어머니에게 닥치는 극도의 배고픔, 즉 '흙을 주워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중국인 헛간에서 발견한 파뿌리로 거의 허기를 면하는 극도의 생존 위기를 면하게 된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파를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는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도 차며 뻗뻗한지, 그의 목구멍은 짓어지는 듯 눈물이 쭉 비어졌다. '파를 먹구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⁹¹⁾

극도의 궁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봉염 어머니는 유모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열병으로 앓다가 그만 죽고 만다. 형제가 죽은 것을 본 주인집에서는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이를 맡기지 못하겠다고며 내쫓아 버려 결국 혼자가 된다.

'남의 새끼 키우느라 제 새끼를 죽인단 말이냐.....이년들 모두 가면 난 어찌란 말이. 날마저 다려가라'라는 절규로 어미의 고통을 충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삶의 무게

91) 소금, 앞의 책, pp. 331~332.

를 죽음으로써 해결하려 하지만 ‘이놈들 어디보자’라는 그 누군가에게 혼자말을 하며 ‘사는 날까지 살자’라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적극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배고픔에 직면하자 조선에서는 소금 한 말에 삼십전 안에 드는 것을 간도에서는 여덟배나 더 이윤이 남는 이원 삼십전에 팔린다는 말을 듣고 소금 밀수에 가담하게 된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가 어느날 공산당 조직에 발각되지만, 공산당이 아무런 제지없이 그들 일행을 보내주고 안녕히 가라고 한 말, 그 목소리가 딸 ‘봉염’의 선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으십니까!” 췌소리 같은 웅장한 음성이 바람결을 타고 높았다. …… (중략) …… 봉염의 어머니는 ‘싼드거우’에 있을 때 봉염이를 따라 학교에 가서 선생의 연설을 듣던 것이 얼핏 생각키우며 흡사히도 그 선생의 음성 같았다.⁹²⁾

봉염어머니는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큰 반발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공산당에게 총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곁에 드러난 원인일 뿐 지주인 팡둥과 남편은 일제의 앞잡이였던 자위단에 속했기에 항일조직인 공산당에게 총을 맞았던 것이다. 따라서 남편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이 일제와 지주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던 봉염어머니이다.

하지만 자기의 생존을 위해 소금 밀수를 하다가 공산당 조직에 발각되어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으십니까!” 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귀를 맴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던’ 반발감은 일정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봉염선생에게는 알게 모르게 신뢰감을 가졌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봉염 선생은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앞서 봉염이와 어머니의 대화에서도 선생이 봉염이에게 했던 여러 말을 종합해 보면 봉염선생의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지식인이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92) 소금, 앞의 책, pp. 350~351.

‘소금 들지 않는 음식과 같이 심심한 생활’에 괴로워하며 소금밀수를 하다가 갑자기 순사를 만나게 된다.

“소금표 내놔!” 관염은 꼭 표를 써주는 것이다. 그때 그는 숨이 콕 막히며 앞이 캄캄해 왔다. 그리고 얼른 두만강에서 소금 자루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였었던 그때와 흡사하게도 그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길잡이가 와서 그의 손을 잡아 살아났지만 아아! 지금에 단포와 칼을 찬 저들을 누가 감히 물리치고 자기를 구원할까?⁹³⁾

소금표 없이 소금을 가진 현장에서 순사에게 발각되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소금 자루를 빼앗기자 봉염어머니는 전에 만난 공산당이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고싶니까? 라는 말을 떠올리며 갑자기 순사들 앞에 벌떡 일어서며 저항의지를 표출한다.

이렇게 해서 「소금」은 봉염어머니가 처음으로 ‘순사들 앞에 벌떡 일어서는 것’으로써 일제에 대한 분노 표출과 현실인식의 각성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⁹⁴⁾ 이러한 갑자스러운 의식의 변화는 단편적이거나 남편을 죽였던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대신 ‘순사’로 상징되는 ‘일제의 저항’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저항의 의식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봉염어머니가 현실에 대한 첫대응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봉염어머니가 여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여성으로서 처한 모순을 밝히는 데는 한계점이 노출⁹⁵⁾된다. 소설구조적 측면에서 다분히 장편적 소재와 구성이면서도 중편 정도의 적은

93) 소금, 앞의 책, p. 353.

94) 봉염 어머니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벌떡 일어서는” 장면에서는 이제 봉염 어머니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서 삭제되어 있다. 시커멓게 먹줄이 그어져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일제의 극악한 검열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김재영 (1995), “민중 속에서 변혁 꿈꾸기-여성 리얼리스트 강경애론” 『한국소설문학대계 17』, 《동아출판사》, pp. 535~536.)

95) 여성으로 처한 모순을 밝히는 데 일정한 한계점을 표출시킨 것은 당시는 외세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했던 구한말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동안 민족주의와 근대적 의식은 심한 갈등을 겪었고,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심각했다. 근대화는 민족독립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거나, 아니면 식민성과의 결합 때문에 경원시 되었다. 여성의 지위 개선은 물론 민족독립의 하위가치로 여겨져, 여성의 교육은 기껏해야 가정교육자로서의 모성과 개

분량속에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봉염어머니의 갑자스러운 의식의 변화를 보이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봉염어머니는 자기가 처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 하지도 않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공산당이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라는 것도 잊고 한 번 들었던 공산당의 연설을 생각해 내서 순사에게 별떡 일어나 저항한다는 것은 다분히 비현실적이며 이 작품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주인공이 처음으로 저항의 자세를 취했다는 점과 현실의 모순을 읽었다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작가는 봉염어머니를 통해 극한 현실에서도 자식에 대한 강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현실에 대한 수동성·소극성·순응성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인간문제」에서 살펴 볼 여주인공 '선비'는 앞에서 살펴 본 여주인공들의 정체성 획득의 결함을 극복하고 노동현장에서 직접 겪은 현실체험을 통해 보다 발전되고 주체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봉염어머니의 정체성 획득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있다.



명한 내조자로서의 아내 역할에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었고, 여성운동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등 다른 사회운동의 부수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진성 (1996), “여성억압기계의 전통과 근대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창작과 비평」, 94호, p. 161참조)

한편, 이상경은 “봉염어머니는 자기가 처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 하지도 않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 그가 공산당이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라는 것도 잊고 한 번 들었던 공산당의 연설을 생각해내서 순사에게 별떡 일어나 저항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한다. (이상경, 앞의 논문, p. 63) 그러나, 이러한 다소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주인공이 처음으로 저항의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3. 하층민 여성의 모순 자각

1931년부터 193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작품활동을 했던 강경애는 1934년에 그의 대표작으로 뽑히는 「인간문제」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그녀의 대표작이며 1930년대 전반의 식민지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적이다. 이는 그녀가 작품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추구하고 작품속에서 단편적으로 노출하였던 현실변혁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념이 「인간문제」에서는 인물의 사고와 행위를 통하여 소설 그 자체로부터 드러나는 하나의 경향으로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됨으로써 전체성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⁹⁶⁾

강경애는 「인간문제」를 연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인간사회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발전할 것입니다. 대개 인간문제라면 근본 문제와 지엽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으니, 나는 이 작품에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근본 문제를 포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요소와 힘을 구비한 인간이 누구이며 또 그 인간으로서의 나아갈 길을 지적하려고 하였습니다.⁹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즉 「인간문제」라는 작품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인간, 우리들 모두이며 그 길은 바로 '투쟁'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 「인간문제」에서 주요한 인물들은 '첫째', '신철', '선비'이다.

스토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여주인공 선비의 일생이지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동적 생을 이어가다가 죽고마는 선비보다 인테리이자 휴머니스트이기도 한 신철이가 인간의 조건과 마주서서 깃박히는 인간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 노력하고 고뇌하는 과정에 보다 이 작품의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⁹⁸⁾하기도 하지만, 신철이가 지식인으로서

96) 이상경, 앞의 논문, pp. 63~64.

97) 강경애 (1934, 7. 26), "인간문제-작자의 말-", 《동아일보》.

98) 서정자 (1983), "강경애연구" 숙명여대원우논총1, pp. 135~136.

작품 후반부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 전향함으로써 주로 노동자이며 남성인물인 ‘첫째’ 초점을 맞추어 리얼리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페미니즘 연구방법을 채택하면서 성적·계급적으로 이중적으로 유린당하고 착취당해 온 여주인공 ‘선비’에게 주목함으로써 깃잡힌 여성의 자각과 일어섬을 그린 수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인간문제」는 1934년 8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식민지 조선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용연동네라는 농촌과 당시 노동자들의 밀집지대인 인천이라는 이원화된 공간적 배경안에서 전개되는 작품이다.

1) 원소전설의 상징성

「인간문제」의 서두는 용연마을과 원소전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 전설은 등장인물의 특성과 일치하면서 작품에 커다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용연마을은 원소설화의 장자침지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악덕 지주 ‘정덕호’가 지배하는 소왕국이다. 돈과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몇 번씩 갈아치우는 덕호이다. 용연마을의 대부분 농민들은 덕호의 땅을 소작하며 살고 있다. 원소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연동네에는 원소라는 푸른 못이 있는데 그 동네의 생명선과 같은 물이다. 이 못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못이 생긴 전설을 신조로 삼고 살아간다. 옛날 그 못터에는 장자침지가 수 많은 종들과 살진 가축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너무도 인색한 나머지 곡식이 남아 썩어나가도 굶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런데 몇 해를 거꾸 흉년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침지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밤중에 장자 침지네 집을 습격하여 쌀과 짐승을 끌어낸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관가에 모두 잡혀들어가 악형을 당하거나 내쫓기게 된다. 그리하여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장자 침지네 집은 하룻밤 사이에 큰 못으로 변하게 된다.⁹⁹⁾

99) 강경애, “인간문제”, 『한국소설문학대계』 17., pp. 11~12.

‘원소전설’은 작가 자신의 고향인 장연군에 있던 ‘용소’에 얽힌 전설을 소설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이 전설은 지주계급과 소작인들의 이원적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원소전설에 투영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파악할 수 있게끔 고정시키고 있는 장치라 할 것이다.

이 전설은 힘없는 마을 주민들 다수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개인적 분노의 감정적인 표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봉건적 경제구조의 모순이 남아 있는 용연마을을 무대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굶주림과 빚 뿐이다. 소작 조건의 불리로 덕호가 요구하는 소작료를 지불하고 나면 농민들은 그해 먹을 곡식이 모자라고 그 결과 다시 덕호에게 장리쌀을 얻게 된다. 이듬해 이자가 붙어서 또 쌀을 꾸어먹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덕호의 마름이었던 선비의 아버지 ‘김민수’는 몹시 착하고 정직하여 덕호 앞으로 몇십년의 부림을 받아도 일동전 한 닢 축내지 못하는 성격이다. 어느날 덕호의 심부름으로 소작인에게 진 빚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집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에 다른 집에서 받은 돈까지 주고 와 버린다. 이에 덕호가 던진 산판에 맞아 그 상처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지만, ‘민수’ 역시 덕호에게서 맞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현실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작가가 덕호의 존재가 얼마만큼 그 마을에 있어 절대적인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악덕지주의 전형적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당시의 지주들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동네에서 수근거리는 죽음의 이유에도 관계치 않았고 오직 덕호만을 믿는 ‘선비’의 어머니마저 죽자 선비는 덕호를 큰집 영감님이라고 따르고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게 된다.

한편, ‘첫째’는 어릴적부터 선비를 좋아하며 선비 어머니가 아플 적에는 소태뿌리를 캐어다 주기도 한다. 친구 개똥이가 장리빚으로 덕호에게 추수한 곡식을 모두 빼앗기자 친구들을 선동하여 구르마에 실은 벼섬을 끌어 내리다 주재소에 끌려가면서 ‘법’에 대해 큰 의문을 품으며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인천부두에서 지식인 ‘신철’을 만나 식민지 사회적 모순을 깊이 인식하지만 신철의 전향으로 노동자의 위치와 처지를 뼈아프게 경험하면서 진정한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인간문제」라는 작품에서 원소전설의 '원소'라는 푸른 못, 그 곳은 항상 착취만 당해오던 민중들의 희망의 담겨 있다. '장자'가 몰락한 곳에 생겨난 연못의 물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생명선이 되는 장자못, 즉 덕호뿐만 아니라 그같은 악덕지주가 몰락한 자리 위에 건설되는 새로운 세계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주 덕호에게 희생적이고 순응적인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걸어야 할 길을 동시에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 '선비'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 확립의 길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졌던 선비가 악덕지주 '덕호'에게 성적·계급적 모순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같았던 악덕지주 덕호의 실체를 알게 된다. 왜 덕호같은 지주가 생길 수 있으며 왜 그같은 인간이 일제의 비호 아래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가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깨달으며 정체성 획득의 길을 걷게 된다.

2) 성적·계급적 모순 체험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세 작품의 공통된 특징은 여주인공들이 현실에 처한 모순을 직접 겪은 이후에야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여성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층민 여성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의 기존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극복과 아울러 적극적인 여성상과 시대성을 맞물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선비'역시 갑갑하다 못해 무지함을 갖고 있는 하층민 여성이다. 그 역시 사회 모순이 강하게 집약되어 나타난 지주 '덕호'의 집에 머물면서 중첩된 모순을 직접 경험하면서 점차 자기자신을 진정으로 뒤돌아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찾고 기존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지할 사람 없는 선비는 지주 정덕호의 집에 와서 살게 된다. 선비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거두어 준 정덕호를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다.

가사에 막히는 것 없이 능한 까닭에 덕호의 부인 옥점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모두 맡길 정도로 선비에게 호감을 보인다. 그러나 덕호의 딸 '옥점'이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대학생 '신철'이가 옥점과 선비 사이에서 애정의 갈등을 느끼며 선비에게 관심을 보이자 선비에게 온갖 구박과 멸시를 준다. '덕호' 딸로부터 계급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옥점 어머니 역시 '신철'과의 관계를 눈치 채고 딸과 마찬가지로 선비에게 시련을 준다. '선비'는 덕호의 성적 억압 이외에도 옥점 모녀와 계급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성적·계급적 억압의 체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서울로 보내 옥점이처럼 공부시켜 주겠다는 덕호의 속임수에 성적 유린을 당하고, 선비의 갈등은 시작되지만 적극적인 대응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도 덕호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강요당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못할 뿐더러 자기 문제의 식도 갖지 못하고 현실의 처한 상황에 안주해 버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은 선비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짐작해보건대 '덕호'에 대한 절대성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덕호는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방금 죽일 듯이 위협을 한다. 전날에 믿고 또 의지했던 덕호! 그리고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같이 그의 장래를 돌보아 주리라고 생각했던 이 덕호가…… 불과 한 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이렇게 무서운 덕호로 변할 줄이야 꿈밖에나 상상 했으랴! 선비는 그 무서운 덕호를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돌리며 눈을 감아 버렸다¹⁰⁰⁾.

후사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덕호에게 성적 유린을 당한 후에 선비는 덕호로부터 탈출하고자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초보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인식은 만일 밖에 나갔다가 덕호보다 더 무서운 인간을 만나면 어찌할까 하는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

한편으로 '차라리 이렇게 몸을 더럽힌 바에는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서 이 집안의 세력을 모두 쥐었으면……'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며, 덕호가 자신의 방을 나가 안방문을 여

100) 인간문제, 앞의 책, p. 153.

는 소리를 들으면 '가벼운 한숨과 함께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까지 한다. 이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적극성보다 현실자체에 순응함으로써 왜곡된 여성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수동성·소극성·우유부단성·순응성 등의 특질로 규정되기에 그에 합당한 여인상이 높이 평가 되었던게 사실이다. 즉, 음지에서 남성을 자신보다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를 이을 자식(아들)을 낳아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⁰¹⁾. 이런 전통 속에서 여성 정체성은 왜곡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비의 이러한 왜곡된 정체성은 비록 첩이지만 '아들'만 낳으면 가문의 대를 이을수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리란 가부장제의 사고가 깊이 내면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남성이라는 사실 자체로 우월감이 확보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구성원 전체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뿌리내리게 마련이다. 선비 자신도 덕호의 '아들'을 낳아 계급적 상승을 꾀한다. 하지만 가부장제의 희생자인 '첩'을 좋지 않게 보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선비 또한 그러한 남성중심적 사고인 '첩질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덕호가 끝까지 자신을 아끼고 지켜주리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옥점 모녀의 '신철이와 선비가 서로 애정 관계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곧이 믿고 화를 내는 덕호를 보고서부터이다.

선비는 떠날 것을 결심한다. 선비의 이런 갑자스러운 의식의 변화는 상황의 급격한 반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덕호에 대한 '기대'가 자신을 버리는 '배반'의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 보게 된다. 계급적·성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었던 선비의 상황은 아들을 낳아 계급적 상승을 꿈꾸었지만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에 대해 인식하면서

101) 김명혜·김훈순·유선영(공편) (1994),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성·미디어·문화」, 나남, pp. 292~293참조. (남성과 여성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질이 문화적으로 구성된다.그 대표적인 예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적 : 여성적 → 적극 : 소극, 존재 : 부재, 제1 : 제2, 독립 : 의존, 일관성 : 다양성, 조직 : 분산, 논리 : 비논리, 명확 : 모호, 신뢰 : 변덕, 머리 : 가슴, 정신 : 육체 객관 : 주관, 하늘 : 땅, 낮 : 밤, 공기 : 물, 이성 : 정념, 문화 : 본성 이렇게 규정된 것들은 가부장적인 것이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특성 중 여성적 특성은 약하고 가치 없는 반면에 남성적 특성은 힘있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서 현실 모순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선비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여성됨의 자각은 현실모순의 경험을 겪고 자기 삶의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모순 자각과 탈출

‘남의 첩질하는 년들은 매를 맞아야 하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자란 선비는 어머니 또래인 ‘첫째’의 어머니 신천택과 자기의 동네친구 간난이가 덕호에게 ‘첩질’하는 짓은 누구에게나 매를 맞아도 당연하다는 어머니의 의식을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가부장제에서 희생자인 ‘첩’을 좋지 않게 보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선비 또한 그러한 남성중심적 사고인 ‘첩질하는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페미니스트적인 정신분석의 의미로 여자아이의 핵심적인 성 정체성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이고 어머니와의 동일성, 연속성, 그리고 동일화 위에 형성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독립성·자율성을 성취하기가 어렵고 여성 정체성은 어머니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 보고 있다.¹⁰²⁾

선비의 성 정체성은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단지 후사를 잇기 위해 성적 유린을 하는 덕호에게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고 오히려 첩질하는 년들은 매를 맞아도 당연하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가득찬 어머니와 동일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봉건 지주 덕호에게 깊이 배신을 당한 후 그의 눈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비로소 눈뜨기 시작하고 자기의 동네친구 간난이와 같은 처지임을 알고 간난이를 자기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게 된다.

그가 덕호에게 유린을 받기전만 하여도 간난이를 아주 몹쓸 여자로 알았지만은, 그가 한 번 그리 된 후에는 웬일인지 꿈에도 간난이를 종종 만나보고 서로 붙들고 울기까지 하곤 하였다. (중략) 그와 자기가 어려서 놀던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간난이가 여기 있을 때 어째서 자기는 그의 맘을 이해해 주지 못하였던가……

102) J. K. Gardiner, 앞의 책, p 230.

하니, 기가 막혔다.¹⁰³⁾

선비는 이렇듯 자기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이는 덕호의 집을 탈출하면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 확립이 시작된다 할 수 있다. 덕호의 집은 선비에게 보호성과 안락성을 주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 폐쇄적인 감금과 억압을 주는 집으로 해석해야 옳을 듯 싶다.

이런 집의 부정성에 대한 거부는 여성들의 성장을 위한 계기로 작용한다. 즉,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억압적인 집을 탈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억압만이 존재하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¹⁰⁴⁾ 지주 정덕호로부터 신천택, 간난이, 선비로 이어지는 성적 억압은 '용연마을을 떠남'으로 이어지는 데, 작가는 '불빛'으로 선비의 정체성 획득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날 밤 선비는 붓짐을 옆에 끼고 덕호의 집을 벗어났다. 사방은 먹칠을 한 듯이 캄캄하였다. 그리고 낮에부터 쏟아질 줄 알았던 비는 쏟아지지 않으나 바람만 술술 불기 시작하였다. 선비는 읍으로 가는 신작로에 올라섰다. 선들선들한 바람이 그의 타는 불 위에 후끈후끈 부딪치고 지나친다. 저편 동쪽 하늘에는 번갯불이 번쩍 일어서 한참이나 산과 산을 발갱게 비추어 주었다. 그때마다 우르르……타는 소리가 들린다. 선비는 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무서우려만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당하리라고 최후의 결심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멀리 마을에서 깜박여 오는 저 불빛! 붉은 실타래 같이 갈가리 찢기어 그의 눈에 비쳐진다.¹⁰⁵⁾

선비의 용연마을 탈출은 그동안 '갈려있던 자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

103) 「인간문제」, 앞의 책, p. 190.

104) 여성에게 있어 여행이나 가출, 외출 등의 행위는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행은 이전의 익숙했던 세계를 떠난다는 점과 새로운 세계와 맞선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적인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탈행위를 통해 단순한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기회까지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여성의 여행 중에서도 탈출과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심리적 여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미현, 앞의 책, pp. 262~265 참조.)

105) 「인간문제」, 앞의 책, pp. 202~203.

는 자기'로서의 공간 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같으면 무서웠을 순간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선비의 독백은 여성으로서 받아야 했던 억압공간인 용연마을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멀리 마을에서 깜박여 오는 불빛!'은 자신의 모순 각성 계기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자신을 주체적인 자아로 바뀌는 불빛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선비가 여성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주는 불빛이라 할 수 있다.

4) 여성 정체성 획득

선비 친구인 '간난이' 역시 노동자인 '태수'를 만나 교육과 지도를 받기 전에는 덕호에게 성적 억압을 당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는 처지였다. 오히려 덕호의 사랑이 선비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며 질투와 시기로 가득찬 모습을 보여준다.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잔 구바르(Susan Gubar)는 『다락방의 미친 여자』의 서두에서 “가부장제적인 사회화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성들을 병들게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학적인 질병을 찾아냈다. 그 질병중에는 광장공포증, 건망증, 식욕부진, 실어증, 히스테리아 그리고 일반적인 광기등 다양¹⁰⁶⁾하다. 간난이 역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덕호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아들을 꼭 낳아 계급적 상승을 꿈꾸는 히스테리성이 나타난다.

간난이가 태수를 만나 지도받기 전에는 그나마 덕호를 잊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도 덕호를 만나 영감님! 나는 월경을 건넜어요! 아마 애기가 있지요……하고 목이 메어 울다가는 깨곤 하였다. 그뿐이라! 그가 상경하기 전에 덕호가 선비에게 사랑을 옮기는 것을 샘하여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놈이 다그치는 바람에 질겁을 해서 달아나다 개똥이네 집으로 돌아갔던 어리석은 자신을 다시금 그는 굶어보았다.¹⁰⁷⁾

106) Vincent Leitch (1994), “페미니스트비평”, 『현대문학비평론』, 김용권·김우창외 공역, 한신문화사, p. 453

107) 인간문제, 앞의 책, pp. 238~239.

간난이 역시 덕호의 아들을 낳아 계급적 상승을 꿈꾸지만 덕호로부터 성적 억압을 당한 후에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받아야 했던 억압의 원인을 깨달은 후 현재 선비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기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현실모순에 대한 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간난이는 선비에게 온갖 질투를 하다가 용연마을을 떠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각성과 아울러 여성 자신의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여성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현실문제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적인 시각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분히 도식적인 인물설정으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식민지 시대라는 암울한 상황이 맞물려 있어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설정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간난이는 선비의 조력자 구실을 한다. 이에 선비는 '간난이가 언제 누구한테 배워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할 유식한 말만 하고 또 모르는 곳이 없이 저렇게 잘 아는가' 하고 부러움까지 갖는 것이다. 따라서 간난이의 야학 권유에 아무런 저항없이 순순히 응하게 되고 의식의 전환을 보다 확고하게 가지게 될 교육의 기회를 획득한다.

선비는 배가 좀 고프나 야학이라는 말에 귀가 띄어서 부시시 일어났다. 그때 그는 덕호가 공부시켜 주겠다는 것을 미끼삼아 그의 정조를 유린하던 장면이 확 떠오른다. 그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진정하며 그들을 따라 강당으로 들어앉았다.¹⁰⁸⁾

야학을 받으며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의 논리를 점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며, 점차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특히 '간난이'와 동일한 신상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움으로써 사회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선을 확보하게 된다.

“선비야! 그런 것을 몰라서는 안된다. 저 봐라, 지금 야근까지 시키면서도 우리들에게 안남미 밥만 먹이고, 저금이니 저축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우리들

108) 인간문제, 앞의 책, p. 246.

을 속여서 돈 한푼 우리 손에 쥐어 보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우리들을 일만 시키자는 것이란다. 여공의 장래를 잘 지도하기 위하여 외출을 불허한다는 등, 일용품을 공장에서 저가로 배급한다는 등, 전혀 자기들의 이익을 표준으로 하고 세운 규칙이란다. 원유회를 한다느니, 야학을 한다느니, 또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운동을 시킨다는 것도, 그 이상 무엇을 더 빼앗기 위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란다…….”¹⁰⁹⁾

그러나 무엇보다 선비의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방직공장의 집단적인 노동자 생활체험이다. 일제시 자본주의는 기존의 가부장제에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착취를 감행하였다. 거기에다 이 시기에는 가부장제적 관념에 민족적 차별이 더해져 이중의 착취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¹¹⁰⁾ 선비는 혹독한 노동 생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석유냄새 나는 안남미밥’과 ‘소금덩어리가 와그르르한 새우젓 반찬’이라는 걸 푹푹히 깨달아 간다. 이것은 선비가 노동자 계급의 생존과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간난이와 같은 계급적 각성에 도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때 그는 간난이가 일상 하던 말을 얼핏 깨달으며, 세상에는 덕호와 같은 우리들의 적이 많은 것이다. 그것을 대항하려면 우리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던 그 말을 그는 다시 생각하였다. 선비는 어떤 힘을 불쑥 느꼈다. 그리고 간난이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 하는데서만이 선비는 첫째의 손목을 쥐어 보리라 하였다. 흠집을 저서 파래진 첫째의 등허리! 실을 켜기에 부르튼 자기의 손끝! 그리고 수많은 그 등허리와 그 손들이 모여서 덕호와 같은 수없는 인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하였다. 선비의 앞에 나타나는 길은 오직 그 길뿐이다.¹¹¹⁾

간난이는 공장밖의 또 다른 조직과 연결하여 공장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는 배라를 뿌리는 등 공장 감독의 감시망을 피해 공장 노동자들의 의식화 운동을 펴 나가며 각성된 노동자의 길을 단호하게 걸어간다.

109) 인간문제, 앞의 책, pp. 250~251.

110) 정진성 (1988),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4집』, p. 53.

111) 인간문제, 앞의 책, p. 265.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조직의 임무를 선비에게 맡기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함을 상기시키며 공장을 탈출한다. 그 이후 감독이 온갖 유혹의 손길에도 굴하지 않고 간난이가 가르쳐 주던 공장 내부 조직 방침과 밖에서 들어오는 문서며 뼈라 등을 배부하며 철저한 조직생활을 경험한다. 그리고 과거의 나약하고 어리석었던 자신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도 깨닫고 성적·경제적 착취자였던 덕호보다 더 무서운 법적·제도적 장치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음을 자각¹¹²⁾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느긋느긋한 덕호가 주던 돈을 이불 속에 넣던 자신을 굶어볼 때, 등허리에서 땀이 나도록 분하고 부끄러웠다. 그뿐이라! 마침내는 그에게 정조까지 빼앗기고 울던 자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자기!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가! 그리고 그 덕호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며 부르던 그때의 선비는 어찌지 지금의 자기와 같지 않았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이때껏 의문에 붙었던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얼핏 떠오른다. 옳다! 서분할멈의 말이 맞았다! 그는 무의식간에 벌떡 일어났다. 그때 손끝이 몹시 아파왔다. 그래서 손끝을 불에 대며 덕호를 겨우 벗어난 자신은, 또 그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오늘의 선비는 옛날의 선비가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었다.¹¹³⁾

자기 정체성 획득에 성공한 선비는 지난날의 나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던지고 새 출발 하지만 공장일에 혹사당하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된다. 이는 1930년대 한국의 공업화 정책은 일본의 독점자본 사이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면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간 시대적 상황과 맥을 같이하는 사회현상이었다.

112) 여성 작가는 여성 경험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도 그 경험이 비단 개인의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각인된 사회적인 것의 산물임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집단의 '정체성' 확립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여성은 세대적·계층적으로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공감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런 연대와 배제의 중층적인 원리를 통해 개인의 삶 속에 계급적·성적으로 억압과 극복의 경험을 지닌 여성들의 삶이 녹아들게 되고, 개인의 삶은 지속적인 성찰과 거듭남을 거쳐 객관성을 띠게 된다. (김양선 (1996), "근대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 94호, p. 151.) 때문에 선비는 개인적 삶을 객관화하여 되돌아 보며 자기 삶과 간난이의 삶을 동일시하게 되어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113) 인간문제, 앞의 책, pp. 288~289.

이는 일본독점자본의 고이윤의 실현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¹¹⁴⁾되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비참한 실상은 극에 다다르게 된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과 여성의 섬세한 노동이 필요한 방직공업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착취가 매우 심했을 것이다. 「인간문제」에서는 이러한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선비는 ……아니 이 공장안의 여공들은, 이 기계란 쉴 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계에 머리카락이나 혹은 옷이 끼일까 봐 무서워서 머리에 수건을 막 쓰고 검은 통옷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시커멓게 내려 입었다. ……간혹에 여공하나가 머리카락이 와꾸에 끼어서 마침내는 기계에 말려들어 무참하게도 죽었던 것이다. 공장에서는 이것을 극비밀에 붙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게 하나, 곁에서 이 참경을 본 몇몇의 여공들이 있으므로,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말이 전 공장안에 짙 퍼졌던 것이다.¹¹⁵⁾

식민지 시대 여성 노동자로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더해진 이중적 착취에서 선비는 결국 건강이 악화된다. 작가는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야근까지 강행해야만 하는 여성 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속에서 선비는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각성과 정체성이 더욱 굳건해지지만 끝내 폐병으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인간문제」에서 선비를 통해 제기된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농촌여성이 지주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점, 식민지 한국의 유리한 조건을 찾아든 일본자본과 결탁한 식민지 대기업이 자행하는 여성노동자 착취와 임금수탈, 비인간적인 근무환경과 처우 등은 작가가 선비의 삶을 통하여 형상화하려고 했던 식민지시대 여성문제의 전형적 실상이다.¹¹⁶⁾

선비의 죽음 소식을 들은 '첫째'는 분노와 아픔에 찬 절규를 하는데 작가는 첫째의 목소리를 빌어 진정한 여성문제의 해결은 총체적인 인간문제의 근원적 해결만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기고 있다.

114) 차기벽 (1985),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p. 237.

115) 인간문제, 앞의 책, p. 296.

116) 김정화 (1991), 「강경애소설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p. 97.

이 시커먼 뭉치! 이 뭉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뭉치……시커먼 뭉치, 이 뭉치야말로 인간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 인간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천만년을 두고 싸워 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 나갈 인간이 누구까?¹¹⁷⁾

이처럼 작가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간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길'을 과제로 남기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인간문제」는 당대 여성의 겪는 성적·계급적 모순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묘사로 표현되었다. 또한, 선비를 통해 식민지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민족적 차별속에서도 한 여성이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의식의 성장과 각성을 통해 식민지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수의 깨어있는 민중들의 자각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IV. 결론

대체로 지금까지 강경애에 대한 연구는 리얼리즘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세 편의 장편소설 「인간문제」에 한정되었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작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던 「어머니와 딸」·「소금」을 첨가하여 여성 정체성 획득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대인들과 지금까지 문단에서는 그를 뛰어난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페미니즘 이론의 도입과 여성적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여성중심적 연구에 힘입어 그의 작품에 대해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 및 연변에서 그에 대한 자료가 일부 소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한 총체적 논의는 여전히 한계를 내보이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의 생애 특징 및 「어머니와 딸」·「

117) 인간문제, 앞의 책, p. 305.

소금」·「인간문제」에 나타난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정체성 획득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경애 생애를 그의 수필을 중심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전 생애 동안 궁핍하게 살았고 이는 여성해방 사상의 내적 원인이 되었다. 둘째, 식민지 시대 간도체험의 공간적 특수성이 문학작품에 형상화되어 그만이 갖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 여주인공은 가부장제 질서를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관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1930년대의 보편적인 여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진보적인 여성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성향과는 달리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순종적이고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넷째,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은 그의 작품 창작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남편과 사상적으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던 그로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실생활에 강인하고 적극적인 여성상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이를 검증시키고 있다.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의 정체성 획득양상은 「어머니와 딸」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남자의 배신으로 인한 여성들의 황폐화되고 타락되 가는가를 어머니 세대인 '예쁜이'와 '산호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극복은 딸 세대인 옥이가 식민지 사회현실을 깨닫고 사회적 각성을 통해 정체성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옥이의 정체성 획득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

「소금」은 식민지 시대 공간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간도를 배경으로 가난과 굶주림, 민족적 모순을 겪고있는 이주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 속에서 모성체험과 현실대응 의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모순이 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설정하여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민중의 질긴 생명력을 읽을 수 있다. 소설구조적 측면에서 다분히 장편적 소재와 구성이면서도 중편 정도의 적은 분량속에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주인공의 현실인식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준 여주인공들의 정체성 획득의 한계는 「인간문제」에 이르러 비로소 해소된다. 여주인공 '선비'는 성적·계급적 모순을 겪는 과정에서 방직공장에서 노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현실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비의 다듬어진 의식은 진정한 여성됨의 자각으로 자리매김 되어 자기를 찾는 여성 정체성 획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여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현실인 식민지 사회구조의 모순을 읽게 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은 총체적인 인간문제의 근원적 해결만이 가능함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 「소금」에 나타난 일정 정도의 정체성 획득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정체성 획득양상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 강경애 소설이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의 생애 및 페미니즘 비평의 시각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을 주목하여 정체성 획득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강경애의 생애가 지금도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전기 복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인물에만 주목하여 작품을 바라봄으로써 남성인물들이 보여주는 면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을 지닌다. 이는 앞으로 리얼리즘 측면과 페미니즘 측면의 연구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는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여성 정체성이 곧 자기가 처한 현실상황을 읽고 그것을 극복하면 여성 정체성이 획득된다는 조금은 도식적인 해석과 결론이 아쉽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페미니즘 문학으로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강경애(1995), 『한국소설문학대계, 17』, 동아출판사.

강경애(1931.5~1932.4), 『어머니와 딸』, 『혜성』.

강경애(1981), 『한국현대문학대계』, 삼성출판사.

<강경애에 대한 短評類>

양주동(1934.2), “여류문인편감촌평”, 『신가정』.

김기진(1934.1), “조선문단의 현재와 수준”, 『신동아』.

이무영(1934.2), “여류작가개평”, 『여성』.

홍 구(1933.3),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장혁주(1937), “강경애여사께”, 『신동아』.

최태응(1963.2), “고향서 뵈 강경애 여사”, 『현대문학』.

<단행본>

김우종(1973),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임현영(1974), 『한국근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백철, 이병기(1975),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이재선(1979),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김윤식(1981), 『속 한국근대작가론』, 일지사.

정한숙(1982),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조남현(1987),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정덕준(1992),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차기백(1985),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백 철(1983),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조동일(1990),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이선영 편(1990),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박종원·류 만(1988), 『조선문학개관』, 인동출판사.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1988), 『조선문학통사』, 인동출판사.

인문과학연구소편(1990), 『현대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성균관대출판부

송지현(1995), 『다시쓰는 여성과 문학』, 평민사.

박충록(1988), 『한국민중문학사』, 열사람.

- 김경수 외(1994),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 김미현(1996),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 한국소설연구회(1995),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 <논저>
- 이상경(1984), “강경애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백현(1984), “강경애의 인간문제 연구”, 여성문제연구 13집,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 서정자(1987), “일제강점기한국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1991)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한국여성학」 7집.
- , (1983) “강경애연구”, 숙명여대 원우논총 제1집.
- 송지현(1991), “1930년대 한국소설에 있어서의 여성자아 정립양상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용희(1989), “인간문제에 나타난 여성의식”, 「이화어문논집」3.
- 정영자(1985), “강경애소설연구”, 「송량 구연식 박사 회갑기념 논총」.
- 남화숙(1989),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은희(1990), “강경애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희(1990), “강경애문학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1993), “강경애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고은미(1996), “강경애소설의 여성의식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1991), “강경애소설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번역도서>
- 이효재 편(1980),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 김열규 외 공역(1988),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 정금자역(1986), 「여성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 김용권, 김우창 외 공역(1994), 「현대문학비평론」, 한신문화사.
- <기타>
- 창작과 비평, 1997, 가을호.
- 창작과 비평, 1995, 겨울호
- 창작과 비평, 1996, 겨울호.
- , 1997, 봄호.
- 김명혜 공편(1994), 「성·미디어·문화」, 나남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Woman's Identity Shown in Kang Kungai's Novels

-Through the review of <Mother and Daughter>, <Salt>, <Humanproblems>-

Lee, Young-Sim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un, Seong-Suk

This thesis deals with the way in which the main characters establish their identity as women through feministic approach to Kang Kungai's three novels : <Mother and Daughter>, <Salt>, and <Human problems>. The reasons why the novels a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m in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vious studies done from the viewpoint of realism or ideology put focus on the conflict between different classes, and therefore they tend to overlook a certain important point. Secondly, male-character-centered reviews of these novels show their narrowness that female characters ar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Woman's Identity", which is dealt with in this thesis means the concept that explains how the experiences of a woman can change her consciousness. The main characters in these three novels follow the same course from this point.

It is true that her works did not been deeply studied until 1970's and properly evaluat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various approaches toward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Education ,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1998. 8.

her works have been tried since more information about her life and literature was introduced. The noticeable things in her lif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he lived in poverty throughout her life, which caused her to lean to feminism. Secondly, the experiences after marriage in Kando under Japanese occupation showed as "the mother" in her literature. Thirdly, in her novels, the main characters show the traditional attitude towards their husbands; devoted and docile, while they try to be independent of patriarchal society. Fourthly, she got a great effect on her literature from her husband. The main characters in her novels are usually wives of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y also struggle against hard living and become stronger by realizing the situation where they are, just as she did. What the writer went through in her childhood led her to open her eyes to women's problems. In addition, a hard time in Kando gave her a opportunity to think over the tragic situation of Korea as a Japanese colony.

J. K. Gardiner defined "woman's identity" as "a process" , and explained that it might be flexible and changeable. She also compared "female main characters" to "the writer's daughters". That explains why woman writers tend to be deeply concerned in creating the female characters. N. Chodrow stated that woman's identity is more sporadic and rarer than man's. Based on these theories, this study reviews the three novels concentrating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dentity as a woman".

<Mother and Daughter> shows how much a woman who was betrayed by a man can get depraved through a story of the mother's generation. The daughter from the next generation realizes where she stands and try to overcome it by facing the fact, not by avoiding it. And , at last she comes to get her own identity as a woman.

In <Salt>, The writher shows the process in which immigrants obtain "the mother" and the strong will to face the truth suffering from both severe poverty and starvation in Kando, which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of a colony. This novel, however, has a flaw that the character's sudden chage in consciousness might not be well understandable, because it was written as a midterm length story though the subject matter of it is more suitable for a long one.

On the other hand, the ain character in <Human problems> come to establish her own identity while she undergoes the society full of contradictions caused by sexual

double standard or class system, and finally decides to join the working class herself. Through this novel, the writer suggested that women's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as problems of not only women themselves but also of all human beings. She also believed that, if not, they would never be solved fundamentally. One more thing noticeable in this novel is that she tried to give more concrete description abou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dentity than in the two other novels, <Mother and Daughter> and <Salt>.

